

청년생활

2

1963

동해의 불사신—가진의 영웅들



← 김 금옥 동무에 대한 입당 보증



민청호 五五八 호 선원들의 회상기 학습 →

청년생활 1963. 2호(161)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조국의 눈'종자

권두언

전체 청년들이 무장 하고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하자

우리 시대는 지구 상의 모든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위대한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며 사회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는 혁명적 변혁의 시대이다. 오늘 전반적 국내외 정세는 우리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급격히 장성하여 그것이 조국 통일의 결정적 요인으로 전변되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통치는 총붕괴에 직면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밑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로 인하여 극도에 달한 무권리와 경제적 파국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 파쑈 통치에 대한 인민들과 청년들의 분노와 반항은 일촉 즉발의 긴박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도 혁명 력량은 적들을 결정적으로 압도하면서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인류 력사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였으며 그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장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그의 영향 하에 급격히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은 료원의 불'길처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강력히 일어 나고 있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의 불'길은 제국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이와 같이 력사 발전의 추세는 우리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력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력사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늙은 승냥이는 최후 순간이 다가 올수록 더욱 단말마적 발악을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국에서 인민들과 로동 운동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며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림으로써 멸망하여 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최후 발악을 다 하고 있다. 미제는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새 전쟁과 핵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최근 더욱 오만해지고 횡포해진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허물어져 가는 식민지 통치 기반을 수습하며 나아가서 《세계 제패》를 위한 돌파구를 뚫어 보려는 저들의 범죄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이 지역에서 반제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됨으로써 미제 식민지 통치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극동에서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을 증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함으로써 새 전쟁의 불'집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장본인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또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이 세상에 결코 평온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최근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는 전반적 국내외 정세를 신중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우리의 혁명 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며 우리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 같이 강화하고 우리가 항상 동원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적들이 감히 우리들에게 덤벼 들지 못 하며 또 설사 그들이 분별 없는 모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보위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혁명 임무이다.

조국—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조국이 없이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도, 청년들의 보람찬 미래도 있을 수 없으며 조국을 잃은 인민에게는 오직 천대와 멸시, 무권리와 고통이 있을 뿐이다.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생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착취와 억압을 모르며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다 같이 일하며 마음껏 배우면서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하고 있다. 혁명 전사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다시 찾은 우리의 조국은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보금자리일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귀중한 터전이다.

그러므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며 그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조국 건설의 주력군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애국적 임무로 된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그 어느 때를 물론하고 항상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몸 바쳐 싸웠다.

새 세상 동터 온다. 어서 마중가자…
…………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
나가자…(혁명 가요 《공청가》에서)

1930 년대 공청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일제와 끝까지 싸워 이겼다.

선렬들의 애국적 피'줄기를 이어 받은 우리 나라 청년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용감히 싸웠으며 오늘도 조국 보위 초소에 굳건히 서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 마치고 있다.

청년들은 혁명 선렬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구감으로 삼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 군대 내 민청원들은 당의 간부 군대화 방침을 받들고 현대전이 요구하는 높은 군사 지식과 군사 기술을 소유하며 군사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고 전투 준비를 일층 완성하는데 모범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근로 인민의 무장 조직인 로농 적위대에 적극 참가하여 군사 훈련을 강력히 진행하며 군사 기술과 전투 기능을 꾸준히 련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방력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국가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로력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분야에서 하나라도 더 증산하고 절약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의 혁명 위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혁명 진지를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과 혁명적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전체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으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부화와 안일, 해이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항상 검박하게 생활하며 사업에서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해이와 권태는 혁명에 대한 도피이며 자멸을 의미한다. 현대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정신을 거세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다.

우리는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 안일과 해이, 부화와 권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수정주의와 양풍은 쌍둥이다. 온갖 퇴폐적인 양풍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혁명적 제도와 질서가 없는 곳에 안일성과 해이성이 나오며 안일하고 해이한 곳에 양풍이 따라 다닌다.

청년들은 일체 안일, 부화하고 무규률적이며 무질서한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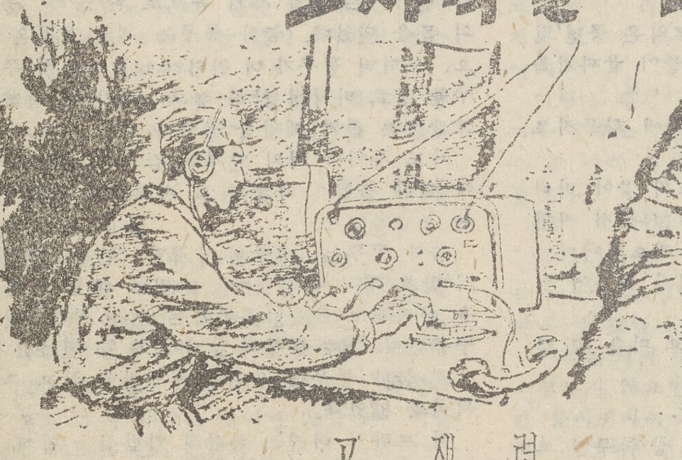
우리는 생활이 유족할수록 남조선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 속히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혁명을 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우리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피로써 쟁취한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최대의 경각성, 최대의 긴장성을 가지고 언제 어데서나 조국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 인민의 철통 같은 통일 단결,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인민들의 비상한 결심과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이것은 그 어떤 선진 무기나 로케트 무기보다도 강력하며 어떠한 침략자도 격파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10 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1963년도 계획을 반드시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포사격을 나에게로》



고 재 견

1953년 6월 2일,

보병 구분대는 351 고지를 습격하고 점령하였다.

우리 련포군 앞에는 보병들의 차후 전투를 계속 지원하여야 할 임무가 부과되여 있었다. 그런데 월비산에 위치한 련포군장 감시소에서는 지형상 관계로 351 고지로 게바라오르는 적의 행동을 감시하기가 곤난하였다.

지원 사격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방 감시소를 351 고지에 신속히 전개하여야 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련포군장은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 대대 정찰 참모 리 능하 동무가 감시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소?》

련포군장은 나직한 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저를 보병 전방 감시소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련포군장은 리 능하 동무가 대대 정찰 참모로 임명되여 온지 얼마 안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음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리 능하 동무는 야전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351 고지 일대에 대한 포 사격 제원표를 련포군장 앞에 꺼내 놓으면서 말하였다.

《저는 당원입니다. 저에게 이 중대한 임무를 주면 기어코 수행하겠습니다.》

리 능하 동무는 간청하다싶이 제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련포군장은 마침내 전방 감시소에 나갈 것을 허락하였다.

련포군장에게서 구체적인 임무를 받은 리 능하 동무는 상급 무선수 장 기능 동무와 함께 곧바로 351 고지에로 올라 갔다.

그런데 351 고지 정점에서는 적의 행동을 손'금처럼 다 볼 수는 없었다. 리 능하 동무는 적의 행동을 잘 감시할 수 있는 351 고지의 돌출부에 전방 감시소를 전개하였다.

이 곳에는 몇 명의 보병 전우들도 있었다.

그는 이 곳에서 고지로 게바라오르는 적 보병들이며 중심 깊이 명'골, 대강리 계선에 있는 적의 포 진지에 대한 포 사격을 지휘하여 적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적들은 351 고지를 《탈환》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 능하 동무는 적들의 새로운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장 기능 동무와 함께 무너진 감시소의 보수 작업에 달라 붙었다.

한참이 지나자 적들의 포격으로 반나마 무너졌던 감시소는 보수되였다.

리 능하 동무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적 진지를 살펴 봤으나 특별한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적 진지를 살펴 보던 능하 동무는 무선수의 어깨 우에 손을 올려 놓으면서 말하였다.

《적들이 기여 오르기 전에 식사를 하기오.》

능하 동무는 자기 배낭 속에서 건빵이며 통조림을 꺼내 놓았다.

둘은 참호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다.

《기능 동문 무얼 생각하오?》

《뭐…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들을 모조리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적들이 마구 짓밟고 있는 저 기름진 옥토를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생각이?》

《농사'군의 아들이였던 저는 저 벌판을 보니 해방 후 당과 인민 정권의 옳바른 시책으로 난생 처음 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던 나날이 더 없이 그리워집니다.

기름진 저 벌판이며 양지바른 야산에 씨앗

을 뿌리고 과실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넓은 골짜기에는 축사를 짓고 방목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가을엔 오곡 백과 무르익은 풍년'벌로 될 것이며 흰 구름떼마냥 양들이 골짜기를 뒤덮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쑤 놈들 때문에 황무지로 되고 있으니…

저는 원쑤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 버리고 승리한 후에 전우들과 더불어 싸워서 지킨 이 고장에 다시 와서 힘껏 농사를 지으렵니다.》

《옳소. 우리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원쑤 놈들을 모조리 처부시자구.》

그들은 더욱 억세게 싸우리라고 마음 속 깊이 굳게 다짐하였다.

어느덧 먼동이 훤하게 터 왔다.

능하 동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무명 고지를 내다 봤다. 적들이 이리떼처럼 게바라오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에선 금시 증오와 분노의 불꽃이 튀였다.

《련포군장을 찾소!》

무선수에게 지시한 후 능하 동무는 재빨리 사격 제원을 구하였다. 장 기능 동무는 련포군장 지휘 감시소를 찾았다.

도적개 남의 집 울타리 기여 들듯 게바라오르는 적들의 한복판에 아군의 위력한 포탄이 떨어졌다.

우리의 위력한 명중탄에 쓰러지는 원쑤들의 몰골을 보면서 능하 동무는 계속 포 사격을 호출하였다.

6월 3일, 전투는 아침부터 이렇게 치렬하게 시작되였다.

적들은 된 매를 맞고서도 순순히 물러 서지 않고 발악적으로 달려 들었다.

리 능하 동무의 호출에 의하여 적에게로 날아 가는 포탄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명중하였다.

전투는 계속되였다. 적 포탄으로 참호는 반나마 무너지고 교통호는 메워졌다.

적과의 치렬한 전투 과정에 중상 당한 보병 전우들은 하나 둘씩 후송되여 갔다. 그리하여 돌출부에는 그들만이 남았다.

적들은 또다시 새로운 력량을 끌어 내여 공격해 왔다. 리 능하 동무는 게바라오르는 적들을 쏘아 보면서

《사과나무 하나 셋!》하고 구령을 쳤다. 위력한 아군의 포탄은 적들의 한복판에 날아 가 명중하였다.

지휘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부하로서의 고상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급 무선수 장 기능 동무는 참호 주변에 적 포탄이 날아와 떨어지는 순간 자기 몸으로 리 능하 동무의 몸을 덮었다. 능하 동무는 《내 걱정은 마오. 오히려 동무가 더 위험하오.》하면서 무선수를 참호 바닥에 앉혀 놓고 다시 포 사격을 호출하는 사격 제원을 불렀다.

어느 사이에 적의 일부는 감시소 앞코숭이에 달라 붙었다. 아군의 포 사격으로 진압하기는 곤난하였다.

능하 동무는 재빨리 수류탄 안전 고리를 이'발로 뽑아서 던졌다. 그리고 다시 수류탄을 던지려고 몸을 솟구치는 순간 적이 던진 수류탄이 능하 동무의 앞에 날아 와 떨어졌다.

리 능하 동무는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그만 의식을 잃었다.

적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하반신을 땅에 파묻힌 채 정신을 잃었던 장 기능 동무는 적이 쏘는 앙칼진 총'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소스라쳐 일어 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 대로 일어 설 수 없었다.

장 기능 동무는 이를 앙다물고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간신히 일어 났다. 적들은 벌써 턱 밑까지 기여 들었다.

《이 원쑤 놈들아, 로동당원이 지키고 있는 고지엔 한 놈도 올라 오지 못 한다.》장 기능 동무는 수류탄을 던지고 또 던졌다. 적은 황급히 40 메터 가량 물러 갔다.

장 기능 동무는 그제야 흉장 우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정찰 참모 동무를 봤다. 장 기능 동무는 간신히 정찰 참모에게로 기여가 그를 그러안았다.

《참모 동무! 참모 동무!》

목메인 소리로 안타까이 부르면서 어깨를 흔들자 능하 동무는 눈을 떴다.

순간 능하 동무는 당이 자기에게 준 전투 임무가 생각났다.

사격 구령을 주려고 하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능하 동무는 왼 손으로 사격 제원표의 한 곳을 짚으면서

《사과나무 둘!》이라고 말하였다.

장 기능 동무는 능하 동무가 부른 사격 제원을 련포군장 감시소에 무선으로 전하였다.

삽시에 아군의 위력한 포탄이 날아 왔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죽음을 당했다.

《참모 동무, 놈들이 도망 갑니다!》어깨를 흔들면서 부르는 장 기능 동무의 목소리에 다시 눈을 뜬 능하 동무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의 미소가 어렸다.

《북쪽이 어디—요?》하고 물었다.

장 기능 동무는 그의 몸을 북쪽으로 옮겨 놓았다. 북녘의 하늘을 말 없이 우러러 보는 그는 생각하였으리라…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당신의 전사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이 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리 능하 동무는 장 기능 동무의 손을 꼭 잡으면서 힘을 모아

《김 일성 원수 만세!》를 불렀다.

정찰 참모를 그러안은 장 기능 동무의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 내렸다. 그는 어금'이를 부드득 갈면서 복수를 다졌다.

장 기능 동무는 정찰 참모를 참호 바닥에 내려 놓고 고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적들은 계속 바라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선 증오의 불꽃이 튀였다.

장 기능 동무는 정찰 참모 동무가 마지막으로 던지려던 수류탄을 대신하여 원쑤들의 한복판에 던졌다.

그리고 다른 수류탄을 또 던졌다.

마지막 수류탄을 던지려고 몸을 솟구치려던 장 기능 동무는 자기도 모르게 《안 돼, 이것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중얼거리면서 들었던 수류탄을 흉장 우에 도로 놓았다. 만일의 경우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기능 동무는 생각하였다.

—이렇게 싸워서는 고지를 지켜 내기 어렵다. 적들은 꼬리를 물고 게바라오르는데 한 두 개의 수류탄으로 어떻게 다 잡는단 말인가. 고지 우엔 적을 절대로 올려 놓을 수 없다. 적을 모조리 쓰러 눕혀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호 안을 둘러 보던 장 기능 동무는 정찰 참모의 가슴 우에 놓여 있는 포 사격 제원표를 봤다. 그의 눈은 금시에 빛났다.

《351 고지 앞코숭, 사과나무 셋.》

장 기능 동무는 여기에다 사격하라고 전파를 날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적은 계속 게바라오르고 있다. 포 사격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고지는 위험하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라고 교시하셨었다.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 있고 항일 빨찌산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찾은 조국,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 조국의 한 치의 땅인들 어떻게 내여 줄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절대로 고지는 적에게 내 줄 수 없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와 싸운 항일 빨찌산 투사들처럼 싸워야 한다. 포 사격을 여기로, 바로 나에게로 부르자!

비장한 결심을 한 그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월비산 우에 있는 련포군장 지휘 감시소 안은 고도로 긴장되여 있었다.

이 때 련포군장 감시소에 있던 나는 동무들과 함께 감시구를 통하여 포연이 자욱히 덮인 351 고지를 내다 봤다. 련포군장은 쌍안경을 눈에 대고 고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고지 우의 용사들은 적들과 치렬히 싸우고 있었다. 쌍안경으로는 포탄에 의하여 무수히 파헤쳐진 구덩이와 안개처럼 산허리를 감도는 포연이 보일 뿐이였다.

그러나 적들은 고지 우에 마음 놓고 오르지 못 하고 있었다. 적들은 게바라오르다가도 우리의 위력 있는 포 사격에 된 매를 맞고는 산산쪼각으로 흩어지며 공무니를 뺐다.

실로 고지는 불사신과도 같았다. 고지에서는 포 사격을 부르는 전파가 끊임 없이 날아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선 통신

이 끊어졌다.

감시소 무선수는 안타까이 상대방의 무선수를 찾았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우리는 불안에 잠기여 351 고지를 감시구로 내다 보았다.

한참 후에 고지에서는 다시 포 사격을 부르는 전파가 날아 왔다.

《사과나무 셋》을 쏘라고!

우리는 놀랐다. 《사과나무 셋》은 전방 감시소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였기 때문이다. 뒤미처 수화기에서는

《적이 접근해 옵니다. 포 사격을 나에게로!》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원쑤에게 죽음을 안겨 주며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포 사격을 호출하는 불타는 무선수의 슬기로운 심정은 감시소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련포군장은 그 짧은 전보문에서 고지에서의 정황의 긴박성과 무선수의 열화 같은 조국애를 심장으로 느꼈다.

그렇지만 련포군장은 그가 요구하는 포 사격 구령을 하달하지 못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전우가 있는 고지 우에 어떻게 포 사격을 한단 말인가?—

그의 눈앞엔 전사한 정찰 참모를 그러안고 적을 쏘아 보면서 포 사격을 호출하는 무선수의 비장하고도 숭고한 얼굴이 나타났다.

가슴을 쥐여 짜는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고지가 위험합니다. 포 사격을 나에게로!》 무선수의 독촉하는 웨침 소리가 수화기에서 또 흘러 나왔다. 감시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련포군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방울 지어 있었다.

련포군장은 독촉의 전파를 받자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그렇다. 전사는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려고 한다. 그의 소원 대로 고지에 포 사격을 하자. 그렇지만 그를 반드시 구원하여야 한다.—

련포군장은 직접 무선기의 송수화기를 손에 잡고 말하였다.

《곧 쏜다. 은폐부에 은폐하고 보고하라.》

《……》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은폐하였다는 보고가 나오지 않았다. 련포군장은 재차 《은폐하였는가, 은폐하여야만 사격한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수화기에서는 은폐하였다는 보고가 왔다. 련포군장은 그제야 포 진지에로 가는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들고 《사과나무 셋》에 대한 사격 제원을 다시 한 번 검열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격 제원이 정확함을 보고 받고 나서야 련포군장은

《사과나무 셋—쏴!》 하고 구령을 내렸다.

지난 날 수 많은 전투에서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겨 준 련포군장이였건만 이 때처럼 비장한 결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격 구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련포군장은 물론 자기 부대 포병들의 포 사격 기술의 정확성을 믿었다. 또 무선수가 자기의 명령 대로 은폐부에 은폐하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전체 련포군의 포는 노한 사자마냥 불을 토하였다. 불'기둥은 적들이 게바라오르는 능선이며 고지의 앞코숭이에서 련방 일어 났다.

《명중! 쏴! 쏴!》

전방 감시소에선 파렬 결과를 계속 알려 오고 있다. 기능 동무는 련포군장의 명령 대로 은폐호에서 파렬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련포군장은 포연 탄우 속에서도 적을 쓰러눕히며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화력을 호출하는 장 기능 동무의 뜨거운 마음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련포군장은 목메인 소리로

《당과 조국은 동무의 전투 위훈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요. 동무에게 감사를 드리오.》 라고 말하였다. 수화기에서는

《적들이 도망친다. 〈사과나무 둘〉로 사격을 이전하라.》라는 호출에 이어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대답 소리가 들려 왔다.

련포군장은 그가 불러 준 사격 제원 대로 꽁무니를 빼는 적의 뒤통수에 련포군의 포 사격을 집중하였다.

《적들이 무리로 쓰러진다. 계속 쏘라!》

무선수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끊임 없이 날아 왔다.

련포군장은 조국의 고지를 지키기 위하여 원쑤들에게 죽음을 안겨 주는 사격 구령을 내리고 또 내렸다.

공화국 영웅 리 숭하, 모범 전투원 장 기능 동무를 비롯한 우리 당의 붉은 전투원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었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며 래일의 희망을 안겨다 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인민 주권을 수호하며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죽음을 원쑤들에게 안겨 주었으며 조국의 고지—351 고지를 끝끝내 고수함으로써 당이 준 전투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농촌 청년들은 청산리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최 만석

지금 농촌 민청 단체들에서 당의 지도 밑에 청산리 교시 실행 정형에 대한 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고 협동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가일층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은 지난 해와 같은 혹심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500만 톤의 알곡 고지를 점령하였다.

금번 진행된 총화 사업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청산리 교시에서 농촌 부문 앞에 제시한 과업 즉 농사'일에 력량을 집중하고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생산 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등의 모든 과업들을 끝까지 관철해 나간 데서는 례외 없이 농사를 더 잘 지었고 협동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였다.

생활은 청산리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때 그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금년도 농촌 경리 앞에는 더욱 방대한 과업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당은 최근 2~3년 간에 전체 인민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을 쓰고 비단옷을 입게 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금년도에 농촌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점령한 500만 톤의 알곡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높은 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방침을 제시하였다.

금년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1964 년도에 가서 300만 톤의 벼, 20만 톤의 육류, 인구 1 인당 매일 10 그람의 기름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바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는 청산리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 청년들은 우선 **농촌 경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일의 앞장에 서야 한다.**

이는 혈기 왕성하고 전장하며 진취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깊은 신임으로부터 오는 당의 요구이며 동시에 년로한 세대들 앞에 지닌 젊은 세대들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우선 농사'일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 운영에서 기본은 알곡을 위주로한 영농 사업이다.

청산리 당 총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주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농 사업 즉 농사 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조합에서는 농사 짓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축산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다른 부문도 더 빨리 발전시

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일에 력량을 집중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체 현상을 퇴치하며 바쁜 농사철에 생산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무원칙하게 회의며, 써클이며, 운동회 등을 벌려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양한 군중 체육 문화 사업은 주로 농한기, 휴식일, 쉬는 짬에 잘 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로력을 랑비하거나 부차적 부문에 로력을 분산시키는 현상과 투쟁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작업 시간을 엄수하고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농사'일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의 모퉁이를 담당하는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사'일이란 매 계절마다 작업 대상이 달라진다.

청년들은 매 계절별로 되는 농사'일에서 어렵고 힘든 일 례하면 파종 시기에는 파종 작업에, 이앙 시기에는 모 이앙에, 추수 시기에는 가을 작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대중을 고무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기 당이 농촌 경리 앞에 제기한 긴요한 일 례하면 관개 공사 작업, 풀베기 작업, 비료 생산에서도 응당 모범적으로 그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바야흐로 전면적인 농촌 기술 혁명은 본격적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당은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에서 달성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강력히 촉진시킬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는 것은 지식 있고 새 것에 민감하고 혁명적 정열이 왕성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선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시키는데 청년들의 모든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기계화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 소극성, 보수주의와 적극 투쟁하며 당면하게 우차, 축력 농기구, 제초기, 호미, 낫을 충분히 확보하고 동력 농기계와 축력 농기구를 옳게 배합하며 일을 보다 헐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동원하여 농촌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야 작업에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이는 것은 농산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농민들의 일을 헐하고 쉽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촌의 기계화에서 농기계 작업소 내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전야에서는 밭갈이가 시작되는 것만큼 뜨락또르의 수리 정비와 련결 농기계 및 부속품을 충분히 장만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밭갈이를 깊게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뜨락또르 운전법을 배울 데 대한 숙천군 내 청년들의 발기에 적극 호응하여 모두가 뜨락또르 운전법을 배우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관개 시설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추가적 투자 없이 몽리 면적을 더 얻어 낼 수 있게 하며 논'벼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저수지, 양수장을 비롯한 관개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철저히 하며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개 공사의 조업 기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땅은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이다. 땅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것은 농작물 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토지 관리를 잘 하며 한 평의 땅이라도 망탕 쓰거나 묵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질 좋은 자급 비료를 더 많이 사비하고 토지 개량을 계획적으로 잘 하는 등 토지의 비옥도를 높임으로써 모든 땅에서 다수확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선진 영농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누구나 다 선진 영농 기술과 작업 방법을 열심히 배우며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랭상모, 면화 영양 단지 가식법, 담배 모 육성법, 축산 부문에서의 오리 제균 처리 등의 선진 기술을 철저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계급 의식을 높이며 농촌의 주인답게 모든 일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농촌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의 하나는 전체 협동 농장원들과 함께 농촌 청년들이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계급 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주인답게 일하는 것이다.

농촌 청년들은 우리 당 정책과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 체득하며 바로 항일 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난관과 애로도 자신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불요불굴성, 없는 것은 만들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아끼며, 일을 찾아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견결한 자력 갱생의 전투적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특히 생활이 유족할수록 근면 검박하며 보람찬 사회주의 농촌에서 일하는 기쁨과 행복한 생활을 느낄 때마다 오늘의 행복 속에 깃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대'가를 잊지 말며 아버지, 어머니들이 체험한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높은 계급적 각성 밑에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농촌을 수호하고 향토를 더욱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청춘의 리상을 꽃피우는 락원으로 꾸리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바쳐야 한다. 농촌의 주인 구실을 하자면 협동 농장의 계획화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돌리고 자기 농장과 자기 작업반의 년간, 월별 과업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사업에도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청년들이 핵심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밀며 이끌면서 우리 농촌을 혁명적 열성이 들끓고 항상 동원되고 단합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우리 혁명의 튼튼한 진지로 만들어야 한다.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앙양시키는 것은 현 시기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들과 우리 청년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농촌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모두가 다 농촌 지원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농사'일을 적극 협조하며 로동 청년들은 좋고 더 많은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농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전체 농촌 청년들과 민청 단체들은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민청 생활을 강화하며 민청 대렬을 더욱 전투력 있게 꾸리는 동시에 자기 맡은 모든 초소에서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와 정신, 청산리 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금년도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시된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생산 유격대의 활동



김 을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인민 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요새화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 들지 못하게 하며 만약 그들이 전쟁 모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제때에 소탕해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러한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혁명 선배들이 일제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의 통치 하에 있는 인민 대중을 전취하여 그들을 무장시킴으로써 혁명 근거지를 요새화 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투쟁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인민적 무장화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 생산 유격대의 투쟁 경험을 연구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 ×

김 일성 동지는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일반적 원칙들을 1930 년대 우리 나라 정세의 구체적 특성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과 로동 운동을 무장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한 혁명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항일 무장 투쟁 로선에서 무장한 반혁명 세력에 대처한 상비적인 혁명 무력의 건설과 더불어 생산을 떠나지 않는 인민 대중에 대한 무장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구체적인 조건과 조선 로동 계급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 임무와 관련된다.

당시 일제는 세계 5 대 제국주의 렬강 국가의 하나로 강대한 군사력과 후방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대로 조선 인민은 자기 강토를 일제의 독점적인 식민지로 강점 당하고 정규적인 민족 군대도 없었으며 국가적인 후방은 물론 그 어디서 한 자루의 무기도 원조 받을 곳이 없는 간고한 형편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은 로동 계급의 조직된 전위 부대인 맑스-레닌주의 당도 없었으며 로동 계급이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 조직을 통하여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반일 군중을 아직 자기의 령도 하에 결속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무장 투쟁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상비적인 혁명 무력의 건설과 함께 인민 대중의 무장화를 실현하여야만 반일 민족 해방 전쟁 승리의 제반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었다. 례컨대 인민적 무장화만이 적의 통제 하에 있는 일정한 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상비적인 혁명군의 대오를 부단히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적 무장화만이 상비적 혁명군의 전투와 적 후방에서의 인민적 폭동의 배합을 가능케하여 민족 해방 전쟁의 확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당시의 력사적 환경에서는 인민적 무장화의 실현으로써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한 각계 각층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도 이룩할 수 있었다. 인민적 무장화의 문제는 비단 반일 민족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였다. 인민적 무장화를 실현하여야만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 후 제국주의자들의 포위 속에서도 독립 국가를 유지 강화할 수 있으며 혁명 운동의 계속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웨. 이. 레닌은 인민적 무장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바로 지금 혁명 시기에 있어서는 인민의 전반적 무장이 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혁명적 군대가 있는데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키는 것은 공연한 일이라던가 혹은 무기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구실은 기만이며 허위적인 간계일 것이다. 문제는 무기가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사용법을 배우는 전인민적 민병을 즉시로 조직하는 데 있다.》(레닌 전집 24 권 206 페지 조선문판)라고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적 무장화와 민병 건설에 관한 레닌의 교시를 항일 무장 투쟁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였다. 조선 인민의 첫 혁명적 군대인 항일 유격대 결성을 준비하던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동만 지대에 공농적위대를 결성하고 무장을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인 정치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 과정을 통하여 항일 유격대는 창건될 수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의 개시직후 동만일대에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형태의 조선 혁명 근거지가 창설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 운동의 전반이 발전하게 된 시기 인민적 무장화의 실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상비적 혁명력인 항일 유격 대오를 강화하는 한편 근거지 내의 모든 군중을 무장시켜 인민적인 방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의 4 면 포위 속에 있는 근거지를 요새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근거지 내의 청장년들과 소년들, 반일 자위대, 소년 선봉대 기타 남녀 로소들은 각기 자기의 혁명 조직들을 통하여 근거지 방위 체계에 망라되였다. 이 때 반일 자위대와 소년 선봉대는 상비적 무장력인 유격대의 후비로서 그 대오를 부단히 보충 확대하였으며 자신을 무장하고 근거지 방위의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의 지도를

받오면서 근거지 내의 군중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비롯하여 유격전에 필요한 군사 행동들을 직접 가르쳐 주였다. 또한 그들은 근거지 내에서 생산의 주요 담당자들로서 군중들에게 소요되는 일체 후방 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정상적으로 전개하였다. 근거지 내의 전체 군중이 무장하고 방위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대》한 무력을 가지고 근거지를 포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 년간 동만 일대에서 마음 놓고 산간 지대를 통행할 수 없었으며 근거지에 공격해 들어 오더라도 그 때마다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하군 하였다.

자원적 원칙에서 조직되였으며 자위적 무장력으로써 공개적 활동과 비공개적 활동을 하던 반일 자위대와 소년 선봉대는 동만 근거지의 페기와 함께 상비적 무력인 조선 인민 혁명군 대오에 편입되였다.

× ×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의 전략 전술적 요구에 따라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형태의 동만 혁명 근거지를 페기하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국경 일대에 새로운 혁명 근거지(장백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 투쟁을 위주로 혁명 운동의 전반을 보다 확대 발전시킨 1930 년대 후반기에 있어서 인민의 무장화 문제는 전 시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주 타격 방향을 국경 지구와 국내에 돌려 무장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 및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 발전시켜야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전략 전술적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천연 밀림 지대와 조국 광복회를 비롯한 혁명 조직의 비밀 요새로 쌓인 비밀 형태의 근거지로서 장백 혁명 근거지를 1936년에 창설하였다. 이 근거지의 유지 공고화와 무장 투쟁을 비롯한 적 후방에서의 각종 형태의 반일 대중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 군중으로써 일종의 혁명적 지하군을 결성하여야 하였다. 지하군을 결성하여야만 일제의 통치 기능을 마비시켜 조국 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 조직들을 강화하며 적들의 통치 기구가 잔존해 있는 곳을 능히 혁명의 근거지로 전환시켜 요새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군을 결성하여야만 조선 인민 혁명군의 인적 및 물질적 후방을 조성하며 무장 투쟁의 승리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지하군으로서 생산 유격대 혹은 로동자 돌격대를 장백 혁명 근거지를 중심으로 국내 광활한 지역들에 결성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생산 유격대나 로동자 돌격대의 결성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고화된 혁명 조직에 군중이 결속된 조건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36년 5월 이후 장백 혁명 근거지를 중심으로 국내의 광활한 지역들에 조국 광복회 조직들이 확대 강화됨으로써 생산 유격대를 결성할 수 있는 곧간이 이루어졌다. 생산 유격대의 결성에 앞서 지방에 파견된 공작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조국 광복회 회원들에게 유격전에 필요한 일정한 정도의 군사 지식을 가르쳤으며 훈련을 실시하였다. 혁명적 군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 골간으로 하며 조국 광복회 조직원들을 구성 성원으로 하는 생산 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이 개시되였다. 이 투쟁은 1937년 봄 장백 혁명 근거지에서부터 시작되였는바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이 직접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장백현에는 1937년 6~7월 경까지 신흥촌 19 도구 약수동, 왕가동, 도천리, 요방자 등지에 각각 약 한 개 중대 력량의 생산 유격대가 결성되였다.

생산 유격대는 해당 지역들에서 지방 당 조직들과 조선 인민 혁명군의 지휘 하에 활동하였다. 생산 유격대의 활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는바 그것은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자체의 전투 준비를 어떻게 완성하였는가? 그들은 혁명 조직들의 비밀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무장을 휴대하지 않았다. 보기에는 모두가 보통 농민이거나 로동자들로써 생산에 참가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항상 비밀리에 전투 준비를 완성해 갔는바 인민 혁명군 부대 성원들(주로는 지방 공작원으로 파견된 성원들)은 때와 장소를 선택하여(주로는 야간)비밀리에 생산 유격대원들에게 무기 사용법, 정찰 방법, 통신 련락법, 적군 와해 사업의 형식과 방법들, 주구 청산 방법, 군중 속에서의 선전 선동 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 유격대는 자체의 전투 준비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하였는바 적들의 소위 자위적 군사 조직인 자위단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일제는 악명 높은 도문 회담(1936년 10월)에서 세운 획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1937년 8월~9월 장백현을 비롯한 동변도 일대에 집단 부락을 설치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강제로 쓸어 넣고 청장년들로써 항일 빨찌산에 대처한 소위 민간 자위 무력인 무장 자위단과 비무장 자위단을 결성하였다. 일제가 자위단을 결성할 때 생산 유격대원들은 대부분 그 성원으로 들어 갔다. 이리하여 근거지 내 많은 적 자위단은 생산 유격대 대장을 단장으로 생산 유격대원들을 단원으로 하여 결성되였다.

적들은 정상적으로 자위단에 군사 훈련을 강요하였는바 자위단원의 이름을 가진 생산 유격대는 이에 열성껏 참가하여 자신의 군사적 기능을 배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적들은 훈련을 잘 지휘하는 단장과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자위단원들을 《모범 성원》으로 표창하기까지 하였다.

생산 유격대는 자체의 전투 준비를 완성하면서 근거지 내의 인민 대중을



군사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생산 유격대에 망라되지 않은 근거지 내 군중들에게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적의 일거 일동을 주시케 하였으며 무기 취급법을 비롯한 군사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점차 무장화해 갔다.

생산 유격대는 자체의 전투 준비와 인민 대중의 무장화를 촉진시키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을 백방으로 지원하였다. 생산 유격대는 자기의 존재 기간 조선 인민 혁명군의 조직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산 유격대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교양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군사 지식을 소유한 성원들이 부단히 혁명군 대오에 참가함으로써 그 대오는 보다 확대 강화되여 갔다. 장백현 한 개 현의 경우를 례로 들더라도 1937년 여름 권 영벽 동지의 직접 지도를 받던 최 경화 동지를 비롯한 수 많은 생산 유격대원들이 혁명군에 입대하였다.

생산 유격대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후방 물자를 보장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집행하였다. 후방 물자 조달의 방법들은 다양하였는바 우선 자체의 생산으로 조달하였다. 생산 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이 소작하는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량곡들을 은밀히 보관하였다가 인민 혁명군에 보냈으며 부업으로써 현금을 축적하여 의약품을 비롯한 군수품들을 구매하여 혁명군에 보냈다. 한편으로 그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서 보낸 군자금을 가지고 국내외 도처의 도시들에 가서 군수품을 구입하였다.

장백현 도천리 일대 생산 유격대원들은 13 도구 경찰서, 세관, 협화회 등 적 기관 내 성원들을 장악하고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군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대담한 활동을 하였는바 그들은 《량민증》(착한 백성이란 증명서)이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 지대 적의 경비망과 세관을 통과함으로써 대량의 군수 물자를 구입할 수 있였다.

전투 조직과 진행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과 협동 동작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 유격대의 중요한 활동이였다. 전투 조직에서 생산 유격대는 많은 경우 정찰 임무와 로획한 군수 물자의 운반 작업을 담당 수행하였다. 1937년 여름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가 장백현 간구자 부락을 진격하였을 때 요방자 생산 유격대는 사전에 부락 내 적의 배치 정형, 반동 지주들과 주구들의 주택 위치 등 상세한 략도를 작성하여 혁명군 부대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 진행중 로획한 군수 물자를 조직적으로 운송하였다.

력사적인 1937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 조직 당시 생산 유격대의 활동은 매우 컸다. 전투 직전에 신흥촌 일대 생산 유격대원들은 수시로 국경 지대 적정을 조사하여 혁명군 부대에 보냈으며 전투 후 17 도구 생산 유격대원들은 국내 혜산에 나와 적의 동태를 상세히 정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혜산에 들어온 일제 조선 주둔군 함흥 74 련대의 무장력 상태와 행동 방향을 정확히 정찰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 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혁명군의 전투 조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생산 유격대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전상자들을 후송 치료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물론 조선 인민 혁명군은 자체 내의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전상자들을 후송 치료하였다. 그러나 빈번한 유격 전투의 특성에 따라서 밀영지에 있는 병원에 부상

자들과 환자들을 제때에 후송하기 어려운 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때면 생산 유격대원들은 그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지방 의사들 (많은 경우 조국 광복회 회원인)의 집에 비밀리에 숨겨 두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을 지원함과 함께 일제의 통치 기능을 백방으로 마비시킴으로써 근거지 내의 혁명 조직들과 지하 공작원들을 보호하여 근거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생산 유격대의 기본 임무의 하나였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비합법적인 활동과 합법적인 활동을 옳게 결합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다. 생산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하부 통치 기관, 사상 단체, 교육 문화 기관, 경제 기관들에 대담하게 들어 갔다. 일례로 권 영벽 동지가 있은 장백현 왕가동에서는 적들의 하부 행정 기구인 툰장, 패장, 자위단장, 학교 교직원 등을 모조리 생산 유격대원들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왕가동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생산 유격대가 조직된 모든 곳들에 있은 일반적 현상이였다. 이와 같이 하부 말단 기관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적들의 그 어떠한 《시책》도 제대로 군중 속에 들어 갈 수 없었으며 그의 통치 기능은 마비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어 적들은 《로별전》을 기도하고 동원하면서도 생산 유격대원인 《자위단장》, 《협화회 분회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적들의 행동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군 하였다. 반대로 혁명 조직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은 비합법적으로 혹은 적들이 공인하는 합법적인 조직을 통하여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갔다.

적들의 통치 기능을 마비시킴에 있어서 일제의 주구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가 장백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대규모적인 군사 정치 활동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자 《토벌 작전》을 강화하는 일방 혁명군 내부를 와해하며 그의 군중적 지반을 파괴하려고 《훈련된》 다수의 주구들을 장백 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대에 파견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은 간악한 책동을 감행하는 조건 하에서 그의 주구들을 청산하고 조국 광복회 조직들을 비롯한 혁명 조직들을 공고히 하여야만 근거지를 요새화할 수 있였으며 조선 인민 혁명군의 활동을 확대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생산 유격대 앞에 일제의 주구들을 청산하는 것을 중요한 전투적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이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국 광복회 회원들과 생산 유격대원들은 갖은 창발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야 하였으며 기량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야만 하였다. 우선 그들은 각 방면으로 적의 주구들의 포치망을 조사 장악하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용의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들은 일제 경찰, 협화회 (협화회는 일제가 괴뢰 만주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소위 국가의 정신적 모체 기관이였는바 이는 정탐을 자기의 주요 임무로 삼았다), 《토벌대》 사령부 내에 들어 가 대담하게 공작하였다. 그들은 일제 경관들과 《결의 형제》를 무어 《친숙》히 지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주구들을 조사해 냈으며 《토벌대》 려단 사령부에 속해 있으면서 지방의 정탐군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와 친교 관계를 맺고 때와 장소를 선택하여 과음시킨 후 주구들의 포치망이 기록된 기밀 문건을 복사해 내기도 하였다. 생산 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요소

요소에 조치된 주구들을 조사 장악한 기초에서 그들을 청산해 갔다. 청산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변장하고 야간에 주구들의 집을 불의 습격하여 체포해다가 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처단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주구를 체포해 가지고 산 중에서 비밀리에 군중 집회를 열고 군중의 이름으로 처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생산 유격대원들이 처단한 주구는 장백현 한 개 현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 십 명에 달하였다.

생산 유격대가 하부 통치 기관을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고 주구들을 대량적으로 청산한 것은 일제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눈 뜬 소경으로 되게 하였으며 듣는 귀머거리로 되게 하였으며 반대로 근거지는 요새화되여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인민 속에 숨은 잠수함과도 같이 적의 일거 일동을 꿰뚫고 자유 자재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생산 유격대는 인민적 무장화와 혁명 근거지를 요새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항일 무장 투쟁 발전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생산 유격대가 이와 같이 거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은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이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생산 유격대의 활동 방침과 구체적인 투쟁 전술을 제때에 제시해 주었으며 그들의 활동과 생활에서 조성된 난관과 애로들을 해결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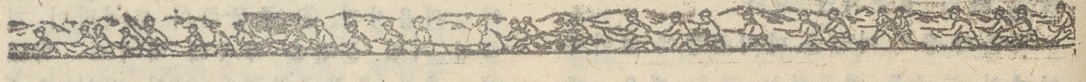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군자금이 충족치 못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하에서 활동하는 생산 유격대에 적지 않은 군자금을 돌려 주었다. 례컨대 1937년 여름 장백현 왕가동에서 활동하는 생산 유격대원이 가정 생활 형편이 곤난하게 되고 그가 신병으로 앓게 되였을 때 김 일성 동지께서는 권 영벽 동지를 통하여 그에게 두 벌의 양복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 배려는 생산 유격대의 힘의 원천이였다.

동시에 생산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맺음으로써만이 그와 같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 ×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생산 유격대가 이룩한 업적과 투쟁 경험은 우리 당과 인민, 로농 적위대와 청년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해방 후 우리 당은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 인민군을 건설 강화하는 한편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공농 적위대, 반일 자위대, 생산 유격대를 조직 지도한 경험에 기초하여 생산을 떠나지 않는 정규적인 로동자, 농민의 자원적이며 자위적인 무력을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생산 유격대의 업적과 경험을 심오히 연구 체득함으로써 그것을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여야 한다.



기계화와 자동화

김 덕 모

지금 우리는 기술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

기술 혁명 과업의 수행은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것이다.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방침 즉 소기계화로부터 대기계화에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기계화에로, 부분적 기계화, 자동화로부터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에로 이행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대담하게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손 로동을 기계 작업으로 시급히 교체하며 공정 간의 기계화가 완성된 부문에서는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 작업에서 기경, 파종, 제초, 수확, 탈곡 작업 등 전 행정에 걸쳐 종합적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며 작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긴절한 과제로 되고 있다.

생산 공정을 기계화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적 로동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계의 작용으로 교체한다는 뜻인데 이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우선 기계 자체에는 동력이 없이 사람의 손, 발이 수행하는 작용을 하는 기구들로 구성된 기계를 사용하는 수동식 또는 족답식 기계를 리용하는 방법이 있다. 례로써 농촌에서 흔히 보는 족답식 탈곡기, 탈곡한 곡물을 선별하는 수동식 선풍기, 논 제초기 또는 새끼 꼬는 기계, 가마니 짜는 기계 등이다.

이와 같은 기계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여 왔었는데 일을 헐하게 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동 또는 족답식 기계들을 앞으로 많이 창안하여 적극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농산 작업의 잡다한 세부문까지도 기계화할 수 있다.

례를 들면 채소의 파종 작업, 랭상모판 혹은 목화 영양 단지 작업, 살초제, 살충제들의 산포 작업, 축산 작업, 과수업 등에서 수동식 혹은 족답식 기계를 창안 도입한다면 일은 헐하고도 많은 능률을 낼 수 있다.

다음으로 기계화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힘을 대신하여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힘이나 물과 바람, 중력 등 자연의 힘을 리용하는 방법이 있다. 례를 들면 우차, 마차와 같은 운반 수단, 농산 작업에서 축력을 리용하는 제초기, 파종기 및 수차, 풍차 등을 리용하는 정미기, 제분기 또는 경사지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무동력 삭도 등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기계 동력을 리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광범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동력용 대기계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축력 원천이 많고 물과 경사지들이 많은 조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용하여야 할 방법이다. 오솔'길이 많은 조건 하에서 우차도 많이 만들고 동력만을 바라 보지 말고 축력식 련결 농기구들을 더 많이 창안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산간 지대에서는 물을 리용하는 기계들도 만들고 경사지도 리용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다 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계 동력 즉 전동기, 발전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기계화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농촌에서 지난 기간 수 많은 인력 또는 축력 기계들을 동력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감소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농촌의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켜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기계들과 전동기, 발동기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됨으로써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육체 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산 작업에서 기경, 파종, 탈곡, 운반 등 많은 부문이 기계화되였다. 한편 농촌마다 전기 동력을 리용하고 뜨락또르, 자동차가 대대적으로 도입되게 됨으로써 수동식, 족답식 또는 축력, 수력 등을 리용하던 기계들의 많은 부분이 동력화되고 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못 해 낼 일이 없게 되였다.

한 례로 지난 날의 족답식 탈곡기는 전동기를 리용하는 동력 탈곡기로 개조되여 기계 한 대를 두 사람이 서서 하루 종일 발로 누르는 힘든 작업을 없애고도 로동 생산 능률을 수 배로 높일 수 있게 되였다면 최근에는 벼'단을 쥐고 훑어 주며 북데기의 선별과 탈곡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기계가 직접할 수 있는 종합 탈곡기를 창안 도입하게 됨으로써 시간 당 2 톤 이상의 탈곡 작업을 하면서도 사람의 로동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화가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열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와 같은 실례는 허다히 많다. 시간 당 10 매 이상의 가마니를 짜내는 《쌍마 12 호 가마니 직조기》, 손 로동에 비하여 10 배의 능률을 내는 나래 엮는 기계, 압축 공기를 리용하며 사람에 비하여 10 배의 능률을 내는 사과 수확기 등 허다히 많은 발명, 창의 고안들이 실현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 작업에는 아직도 손 로동이 남아 있다. 합리적인 련결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 도입하여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며 벼 농사에서 이앙 작업, 수확 작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기계화를 완성해야 한다.

종합적 기계화란 모든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는 것인데 이미 공정별 기계화가 완성되여 가는 축산 작업, 고공품 생산 령역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 기계화로 이행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 시기 지방 공업 부문의 기술적 개조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지방 공업의 기술적 개조에 대하여 《…**기술 혁명을 해서 아직까지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을 다 기계화해야 한다. 지방 공업에서 아직 전반적 공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다쳐도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고 반자동화로 넘어 가야 하겠다.** …》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므로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수공업적 작업 방법을 시급히 퇴치하고 모든 생산 공정을 다 기계화하고 점차 자동화해야 한다.

장, 두부, 기름 등 식료품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완성하며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방직 공업, 제지 공업, 일용품 생산 공정의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서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며 제품의 질이 일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창성군에서의 경험은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현저히 개선한 결과 기계화 수준은 90.5%에 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농촌 경리 및 지방 공업의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더 많은 알곡과 육류, 질 좋은 다양한 일용품들이 생산되면서도 일은 헐하고 흥겨웁게 될 것이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이 일층 제고되여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가 하루 속히 없어지고 보다 빨리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앙 공업에서도 기술 혁신을 적극 촉진시킬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 공업 부문에서는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설비의 기술 상태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현존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아직도 손 로동에 의거하고 있는 부문들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 작업에서 보조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며 공정 간의 기계화를 완성하여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며 자동 기계, 반자동 기계들을 광범하게 도입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공장들에서 종합적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기대 설비 및 공정들의 생산성과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지며 동시에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현저히 제고된다.

현재까지 우리의 중앙 공업 부문에서는 많은 기술 혁신을 가져 왔다. 많은 공장들에서 각종 단능 기계, 종합 기계들을 자체로 설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8 메터 타닝반, 3천 톤 프레스, 47축 자동 보링반 등 혁신적인 기계화 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가 완성된 부문에서는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종합적 기계화란 제품 생산의 첫 공정으로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모든 공정을 기계화한다는 뜻인데 례를 들면 주물 직장에서 용선로에 장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락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다. 문천 기계 공장에서는 주물 직장의 종합적 기계화를 완성한 결과 생산 능률이 2.6 배로 높아졌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가 높은 형태로 발전되면 자동화에로 넘어 가게 된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원료의 초보적 가공으로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정에 사람이 없이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자동화가 실현되면 로동 생산 능률이 최대로 높아지며 육체적 로동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은 기계의 감시나 하게 될 것이다.

즉 자동화는 기계의 운전까지도 사람을 대신해서 해 준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여러 공장들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자동화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바 부문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실행되였을 때 부문 자동화라고 하며 모든 행정이 통일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였을 때 종합적 자동화라고 한다.

부문 자동화된 례로써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 선반은 기계에 붙어 있는 기억 장치에 깎아야 할 치수를 지시해 놓고 소재를 주기만 하면 지시한 치수와 꼭 같은 제품을 기계가 혼자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운산 공구 공장의 청년들은 드릴 자동 후라이스반 및 자동 검사기 등을 자체로 제작하여 소재의 절단 공정으로부터 기계 가공의 마지막 공정인 쇠'밥홈파 뒤'면 가공까지 10 개의 공정이 모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드릴 자동선을 완성함으로써 종전에는 20 명의 기능공이 하던 일을 대신하여 한 사람의 운전공이 운전대에 앉아서 조정만 하면 20 초 동안에 1 개의 드릴을 생산하게 되였다.

이 밖에도 많은 기계 공장 및 공무 수리 직장들에서 모사 방법에 의한 반자동 선반, 모사 후라이스반 및 낫트 자동반, 볼트 자동반 등 각종의 자동반들을 자체로 창안하여 도입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있다.

종합적 자동화의 실례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바 2.8 마동 쎄멘트 공장에 가면 기차가 원료를 실어 온 데서부터 제품을 포장하는 데까지 중앙 사령실에 앉아서 장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 2.8 비날론 공장, 황해 제철소, 룡성 육류 가공 공장, 성진 제강소, 평양 방직 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에서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한다는 것은 결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꾸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계화, 자동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부문,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걸린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방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자력 갱생의 고상한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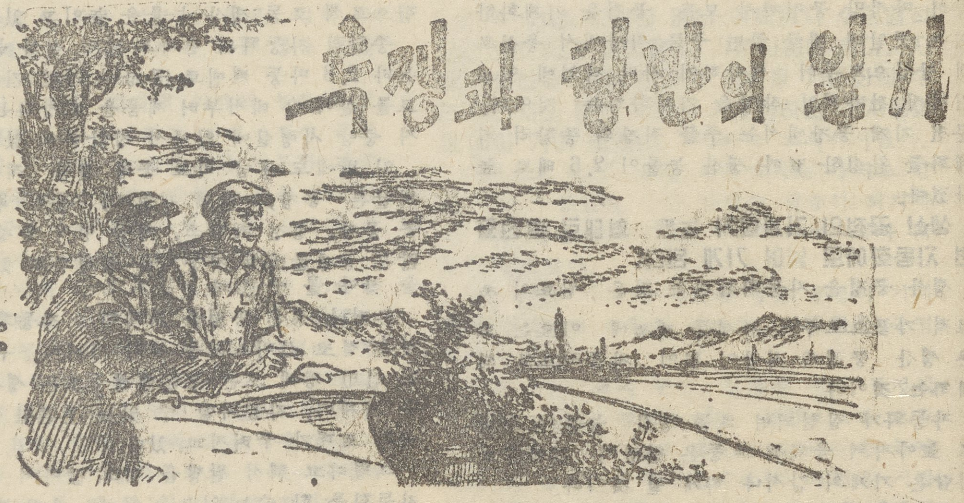
청년들은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척후병이라는 긍지감을 더욱 높이여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것만 바라 보고 작은 것을 홀시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창의 고안 합리화안들을 광범히 제기하며 그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그것도 불과 몇 해 어간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은 몇몇 사람들의 지혜나 열성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으며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재능을 하나로 합치여 전 군중이 동원될 때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투쟁과 랑만의 일기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농촌에서 일하며 배워 청춘의 리상과 행복을 활짝 꽃피우고 있는 평남도 문덕군 니서 협동 농장 민청 부위원장 김 만영 동무의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을 적은 일기장을 읽고서…

《…나는 오늘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 왔다. 바야흐로 농촌에서 협동화 운동이 고조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시기에 농촌에 뛰여 든 것은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

고향!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항시 잊지 못하던 마음의 요람, 나는 그 때 전투의 짬짬에도 병사의 수첩을 펼쳐 들고 아름다운 래일의 고향에 대한 설계도를 그렸다. 어디엔 놈들의 폭격에 파괴되였던 학교를 다시 세우고 집들은 장차 문화적으로 어떻게 짓고 과수밭은 어디에 어떻게 개간하겠다는 등등… 그러면 모진 전투의 피로도 말끔히 잊어지군 하였다. 동무들은 그 때 나의 이 꿈 많은 설계도를 두고 〈공산주의 설계도〉라고 롱말까지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도 그립던 고향에 나는 오늘 돌아 왔다. 오늘날 농촌엔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장차 여기에서 나는 자연을 개변하고, 사회를 개변하고, 인간을 개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리라! 이 값 높은 투쟁 속이야말로 청춘의 참된 행복이 있고 랑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 만영 동무가 1956년 가을 신병으로 영예 전상자 병원 생활을 걸쳐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 온 날 적어 둔 일기의 한 구절이다. 그 일기장은 벌써 표지의 색갈도 낡았고 내용도 군데군데 읽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로부터 만영 동무가 거의 매일과 같이 또박또박 적어 놓은 그 일기의 수 많은 구절들에서 그가 불타는 시절의 나날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자기의 힘과 정열을 고향 땅에 바쳤는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었다.

…제대되여 돌아 온 이튿날 만영 동무는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엔 아직도 병색이 완연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두 아끼는 심정에서 이렇게들 권했다.

《아직도 얼굴이 통 말이 아닌데 며칠 푹 쉬여요.》

《정말 그게 좋겠어요. 그러다가 병이 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만영 동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전 념려 마시우. 일을 하면 몸이 빨리 추선답니다.》

그는 날직하게 이랑을 지어 가지고 푹푹 베여 나갔다. 알알이 차돌처럼 영근 나락이 뺨을 스치는 때에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 구수하게 풍겨 오는 흙 냄새, 맑은 가을 하늘과 전야에 흐르는 신선한 대기, 참말 농토에서 일하는 맛이란 얼마나 좋은가!

대지가 휘도록 곡식은 울차게 되였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기쁨이 찰랑거린다. 옛날엔 짓눌리우고 못 살던 고향 사람들… 바로 만영 동무의 아버지도 이 벌에서 김 룡찬이란 지주놈의 땅을 부치다가 어느 해엔가 흉년이며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경찰놈들게 뭇매를 맞고 그것이 어혈이 되여 세상을 떠났다. 오직한 분인 그의 형도 어느 여름날 논'두렁 풀을 베는데 지주놈이 나타나 《왜 남의 풀을 베느냐. 이 마을 풀과 검불 하나도 모두 내 것이야. 이 도적놈 녀석》하고 소리 지르며 낫을 빼앗아 휘두르는 바람에 피를 랑자하게 흘리고 부상 당했다. 지금도 군대에 복무하는 형님의 몸에는 그 원한 깊은 상처가 그 대로 남아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러한 고향에 오늘은 평남 관개의 생명수 굽이쳐 흐르고 새 생활이 꽃핀다. 그러고 그 벅찬 생활의 한복판으로 자기도 뛰여 든 것이다. 그는 행복에 겨워 남에게 뒤질세라 땀을 철철 흘리며 일했다.

그런 탓인지 몸이 쇠약한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 가다가 어립증이 나서 비틀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는 논밭으로 달려 나왔다.

바로 이 해 겨울 붉은 수도 평양에서는 민청 제 4 차 대회가 열렸고 대회에서는 농촌 부문에서 2만 명의 기사, 기수를 자체로 양성할 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대회의 이 결정은 전체 농촌 부문 청년들과 함께 만영이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그는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우리는 아직도 재래의 락후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의 기술적 개조 없이는 일 보도 전진하지 못한다. 바로 이 어려운 과업을 해결할 사람들은 청년들이다.)

그러나 막상 공부하려니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러저러 《선진 영농》이요, 《농산 과학》이요, 《소채 재배법》이요 하는 책들을 얻어다 보았으나 원래가 기초가 약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를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한 때는 락심까지 하였다. 차라리 군대에서 제대되여 학교에나 갔을 걸 하는 생각이 일시적이나마 든 일까지 있었다.

이 때 그를 제때에 도와 준 것은 민청 단체였다. 어느 날 포전에서 함께 일하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였다.

《만영이, 전문 학교에 가지 않겠나!》

《뭐 전문 학교?》

《농촌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로동과 학습을 옳게 결합만 시킨다면 말이야.》

그러면서 민청 위원장은 통신 수업에 대한 방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날부터 만영 동무는 통신 전문 학교에 대한 입학 준비에 분망하였고 그 이듬 해에는 평양 고등 농전 통신 학부에 입학하였다.

간고한 학습의 나날이 시작되였다. 전야에서 일하는 여가를 리용하여 20여 가지의 전문 과목을 습득하기란 수월치 않았다. 특히 기초 지식이 어린 그에게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은 더욱 어려웠다.

그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들에 대하여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벌써 나는 단 하나의 수학 공식이 풀리지 않아 사흘'밤을 모대기고 있다. 지어 간밤에는 꿈 속에까지 그 문제가 떠올랐는데 웬일인지 술술 풀렸다. 그래서 너무 기쁜 김에 환성을 지르다가 후다닥 깨였다. 그러나 막상 잠을 깨니 또 깜깜하였다. 너무도 안타까웠던 나머지 꿈에까지 그런 일이 생겼던 모양이다.

오늘 밤도 자리에 누웠으나 도시 잠이 오지 않는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저 가슴을 쥐여 뜯으며 한바탕 울고라도 싶구나…》

또 어느 날 일기엔 이런 구절들도 있다.

《…공부는 반드시 산 공부가 되여야 한다. 공식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따위의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생활과 튼튼히 결부된 학습만이 은을 낸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이 원칙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오늘도 나는 일터에서 돌아 올 때 벼 한 대를 뽑아 들고 잠 시간을 아끼노라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손에 들고 중얼거리면서 작물학을 공부하였다. 〈이건 벼 줄기인데 6~7개의 마디로 되여 있다. 벼'대와 잎자귀가 련

결된 이 대목은 열 모양으로 생겼고 이것을 엽위라고 하며 벼'대에 벌레들이 못 들어 가게 막는 역할을 한다…〉

나는 어찌나 열중했던지 뒤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 오는 줄도 몰랐다.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버럭 성을 냈어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여보! 동무! 책과 목숨을 바꿀 작정이요? 원 별 사람 다 봤네…〉

… ……

…일부 동무들에게서 왕왕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시간이 없다고 책 한 권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만영 동무는 결코 자신의 학습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 속에서 꾸준하게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청년들의 임무와 선진 영농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해설하였다. 한 두 번에 듣지 않으면 열 번, 스무 번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기술 학습 의욕이 날을 따라 높아 가게 되자 이번엔 민청 단체에 제기하여 그들 속에서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였다.

1958년 겨울의 어느 날 저녁…협동 농장 상점에 매달아 놓은 종이 《뗑뗑뗑》 크게 울렸다. 잠시 후 40 여 명의 청년들이 기술 학습 장소인 너서 중학교 교실에 모여 들었다. 강사로는 고중 졸업생인 안 동춘, 김 순영 동무들과 만영 동무였었다.

실제 생활적 자료로부터 출발되는 만영 동무의 강의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였다.

《동무들! 동무들의 집에서 쓰는 바가지를 잘 굳히는 법을 아오? 그걸 돼지우리 옆에 심어선 안 되오. 거기엔 질소가 많아 박이 잘 굳지 않소. 카리 성분이 많은 재우리 옆에 심어야 잘 굳소. 자! 그럼 오늘 저녁엔 어런 방식으로 토양학과 비료학을 공부해 봅시다.》

청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밤 가는 줄 몰랐다.

모범이 모범을 낳는다고 그 후 협동 농장에서는 김 광생, 안 경자, 안 재경, 김 세두 등 15 명의 청년들에 고등 농업 기술 학교의 통신망에 새로 입학하였다.

그리고 분초를 아껴 가며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만영 동무는 1961년 봄 최우등의 성적으로 통신 농전을 졸업하였고 영예로운 공화국 농산 기수의 자격을 받았고 그가 지도한 기술 학습반원들 속에서도 련'이어 5~6 명의 청년들이 검정 시험의 방법으로 기수의 자격을 수여 받았다.

농촌 기술 혁명을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한 만영 동무를 비롯한 이 마을 지식 청년들의 활동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통계가 잘 말하여 준다.

기수 시험 합격자	일부 과목 합격자	통신 학교 망라자 수		
		대학	고등 농업 기술	계
7 명	35 명	3	18	21

기수 시험(검정) 준비자 수			비 고
남	녀	계	
31	38	69	1962년 말 현재

그러니 생산에선들 어찌 은이 나지 않겠는가?

지난 해에만도 이 곳 기술 학습반원들은 예찰반을 조직하여 군'적으로도 제일 먼저 조전에서 늦벌레와 엽장충의 유충들을 발견하여 박 상렬 농산 기사와 김 만영 동무 등 기술 핵심들의 지휘 밑에 그것을 성과적으로 박멸하여 병충해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일부 포전들에서는 부족되는 미량 원소 문제들을 해결하여 정당 789 키로라는 놀라운 벼의 증수를 더 거두었다. 또한 그들은 집체적 지혜를 발휘하여 《랭상모 상토 매집기》, 《자급 비료 산포기》, 《랭상모 나래 엮는 기계》 등을 창안 제작해 냄으로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고 수천 공수의 농촌 로력들을 절약케 하였다.

어찌 만영 동무의 활동이 기술 혁명 령역에만 머물을 수 있으랴! 그는 실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인간을 개조하는 그 모든 투쟁의 앞장에 섰다. 소리산 과수원 개간 공사 때 쓴 그의 일기의 한 토막에는 이렇게 적여져 있다.

《…나는 벌써 며칠째나 청년 돌격대에 망라되여 소리산 과수원 개간 공사장에서 일했다. 오늘은 계단식으로 뻗어 오른 과수밭들에 3 년생 묘목들을 심었다.

이제 몇 해만 지나 보라! 우리 고향의 산꼬지기, 마을 주변들은 사과꽃, 복숭아꽃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하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 줄 모르겠다.》

안 동무는 협동 농장 내에서도 가장 말썽 많은 동무였었다. 만영이는 민청 단체에서 그를 교양할 과업을 맡았다. 그러나 그를 만나서 담화라도 하려고 하면 괴벽한 성미인 그는 빽빽 맞서기만 한다. 그 때의 안타까움에 대하여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



《…나는 오늘도 안 동무를 보고 이야기를 걸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성을 내지 않는가.

〈왜 자꾸 시끄럽게 따라 다니며 이 야단이야! 뭐 누굴 교양하려구 그래! 동무나 똑똑히 놀라구, 정녕 시끄럽게 굴면 나도 제 배'장이 있단 말이야!〉

하고 덤벼 들지 않는가! 순간 나는 밸이 울컥 치밀었다. (내가 뭣이라고 저런 친구를 위해서 애쓴단 말인가? 에익 될 대로 되라지!) 너무도 분해서 나는 눈물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참 후 나는 겨우 진정하고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아니다 모든 것을 참자. 아직도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 과연 내가 그를 얼마나 진정으로 대해 주었던가? 그가 진정으로 나를 혁명 동지로 여기게 하자! 더욱 좋은 방법을 찾아 내여 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자…》

그리하여 만영 동무는 그에게 열 차례의 개별 담화를 하였고 저녁마다 회상기를 읽어 주었다. 이런 진정 앞에서야 바위인들 움직이지 않겠는가! 어느 날 안 동무는 만영 동무가 감기에 좀 걸려 누워 있는데 다시 찾아 와 이렇게 말했다.

《병이 심한가? 나 때문에 속을 썩여 그럴 게야, 차라리 나를 꽉 욕하여 달라.》

그는 목이 메여 말도 잘 못 했다. 만영이는 뜨거운 마음이 북받쳐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원 못 나게두! 자! 어서 이야기나 하며 놀자구.》

만영 동무가 고향 산천과 고향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린 사랑의 씨앗은 세월과 더불어 그는 지난 해 조선 로동당에 입당했으며 금년에는 또다시 《민청 창립 10 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받는 영광을 지녔다. 그 날의 감격에 대하여 만영 동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상장과 상품 수여식은 모란봉 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나는 수상님의 성함이 아로새겨진 상장을 붙안고 거듭 맹세를 다졌다.

(수상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과분한 영예에 보답하기 위하여 당신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받들고 금년 농사를 더 잘 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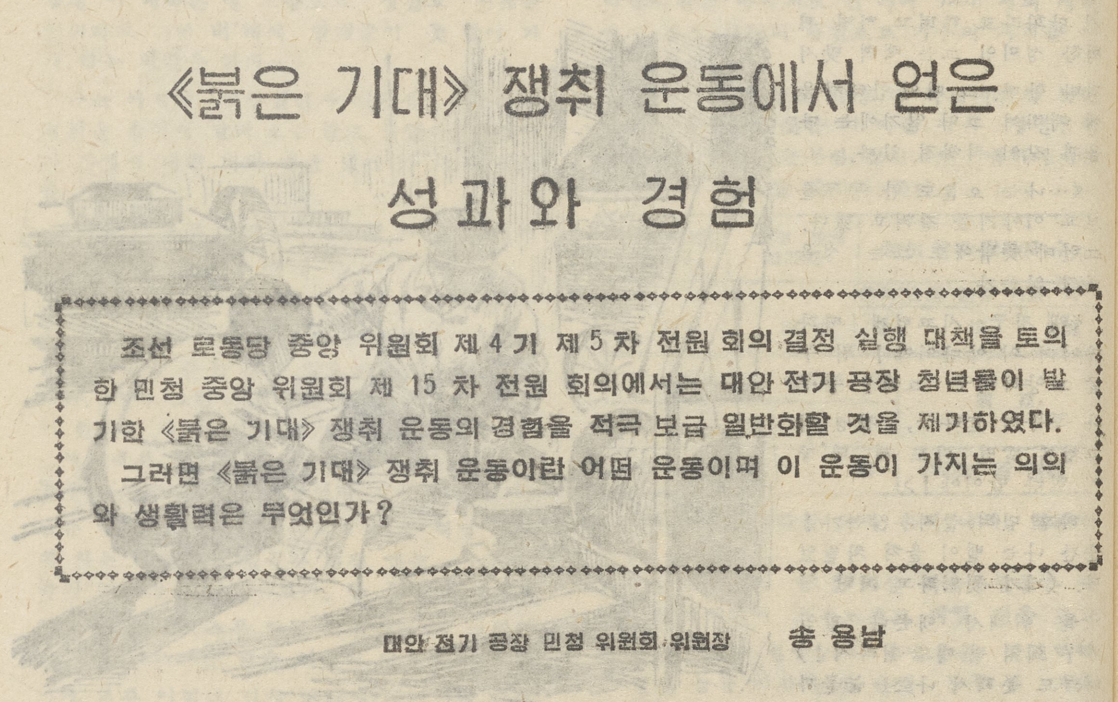
밖에 나서니 하늘의 뭇별들도, 휘황한 가로등도 나를 반겨 춤추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독자들이여! 이런 사람들은 흔히 그 어떤 성과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으며 자기가 획득한 영예에 대하여 현훈증을 일으키지 않는 법이다. 그들은 생활에서 정지를 모르며 안일과 해이를 자살처럼 두려워 하며 언제나 더 한층 우로 날아 오르기 위하여 나래를 세차게 퍼덕거린다.

그와 같은 것은 만영 동무가 극히 최근에 쓴 일기의 한 구절이 잘 말해 준다.

《…나는 지금 평양 농대 통신 1 년생이다. 장차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가? 우선 우리 마을을 제일 먼저 공산주의 부락으로 건설하려라! 그렇다! 투쟁이 없는 곳엔 행복도 없으며 참된 혁명적 랑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철석 같은 나의 신념이다.》

본사 기자 한 희만



《붉은 기대》 쟁취 운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 대책을 토의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5 차 전원 회의에서는 대안 전기 공장 청년들이 발기한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의 경험을 적극 보급 일반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며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생활력은 무엇인가?

대안 전기 공장 민청 위원회 위원장 송 용남

수상 동지는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설비를 제때에 점검하고 부속품을 앞세우고 자재를 앞세우며 설계를 앞세우는 것이 생산 조직에서의 한 개의 법칙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설비를 제때에 보수 정비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잘 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장 민청원들 속에서 조직 진행된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은 설비 관리를 강화하여 그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가져 오게 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 이 운동은 처음 가공 청년 직장 리 종근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 속에서 발기되였다.

작년 초에 우리 공장에서는 수상 동지께서 몸소 만들어 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새로운 기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생산 조직이 급속히 째이고 이에 따라 날로 열성이 높아 가는 기대공들 속에서는 《나의 기대》, 《나의 공구 갖추기》 경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설비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기대공들이 일하는 품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그 때까지도 기대 정지 시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으며 설비 리용률은 높지 못 하였다.

그것은 설비 관리 사업이 군중적인 운동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 했기 때문이였다.

사실 330 여 대나 되는 현대적 기대 설비들을 공무 동력부 일'군들로만은 성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오직 집단의 힘 특히는 기대 설비를 담당한 로동자들의 90%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힘이 적극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기대란 한 사람이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한 기대에서도 기능이 다르고 일하는 품이 다른 두 세 사람이 각각 교대별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이 기대를 잘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그를 불철저히 관리한다면 기대는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설비 관리에 한결 같이 참가하되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것은 대안 사업 체계 그 자체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는 설비 관리의 주인은 직장이며 기대공이라는 것을 다시 밝히면서 설비 관리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 것을 제기했던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전달 받은 날 리 종근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설비 관리에 적극 참가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밤이 깊도록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많은 동무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설비 관리를 해 나갈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선반공 안 방추 청년의 의견은 작업반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는 매개 기대들을 《붉은 기대》로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 다루는 세 교대 청년들이 동일한 행동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며 우수하게 관리한 기대공들에 대해서는 매월 1 회씩 기대공들의 이름을 적은 도표에 《붉은 별》을 그려 넣자고 제기하였다.

이런 모임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 작업반원들 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 났다. 그들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설비를 전투 무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언제나 먼저 상기했고 작업 후에는 《증가목에 대한 이야기》,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의 회상기 연구 발표회를 반드시 가지군 하였다. 세파공로 수한 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은 얼마 후부터는 자기 교대를 마치고 다시 다음 교대에까지 곁잡아 들어 가능 어린 동무들에게 기대의 성능이며 구조, 도면 토해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작업반에서는 기대공들의 부주의로 인한 기계 정지 시간은 근절되고 그의 리용률을 단 20 일 간에 5%나 더 높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는 저 대로 동무들과 만나면 서로 마주 앉아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예비를 탐구했다.

이러던 어느 날 2월달 증산 목표를 더 초과 수행하기 위해 작업반원들이 다시 모여 앉아 의논하게 되였다.

여기서 리 종근 반장은 작업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런 것을 제기하였다.

《설비 관리를 더 잘 하자면 기대공들 뿐만 아니라 기중기 운전공들도 점검 보수공들도 이에 한결 같이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재를 보장해 주는 주조 직장에서도, 우리의 제품을 조립하는 다음 직장에서도 설비 리용률을 높여야 우리 직장, 나아가서는 공장의 전반적 생산에서 급속한 장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공장의 모든 설비를 붉은 기대로 만들기 위해 집단이 한 마음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관리해 나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그의 수행을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리 종근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의 이런 제기가 곧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의 발단으로 되였던 것이다.

이 작업반원들의 발기는 삽시간에 전 직장, 나아가서는 공장의 모든 사람들의 감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치한 지지를 받았다. 이 작업반원들은 당 세포의 지도 밑에 직장 일'군들과 민청 열성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붉은 기대》 쟁취 운동에 관한 규정까지도 만들어 냈다.

그들은 그 규정을 만드는 데서 다음 두 가지 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

하나는 청년들이 이 운동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여 집단주의와 혁명적 동지애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설비에 대한 기술 관리 수준을 높이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습득을 백방으로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붉은 기대》 쟁취 운동에 관한 규정에 담겨진 내용을 간략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규정에는 먼저 이 운동에 참가하는 대상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이 운동에는 기대 설비를 담당한 청년이라면 그가 운전공이건 보수공이건 그리고 공작 기계를 다루건 보이라를 다루건 누구든지 자원적으로 참가하게 되여 있다.

다음에 이 운동 참가자들의 활동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운동 참가자들이 설비를 전투 무기처럼 애호 관리하여 설비의 사고를 근절하고 리용률을 계통적으로(잠정적으로는 매일 평균 75% 이상) 높이며 자기 앞에 부과된 계획을 일별, 지표별로 초과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대 청소, 정비, 인계 인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검 자수를 강화하여 공구 지구들을 자체로 갖추고 예비 부속품 3 개월분 이상씩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기술 혁신 운동의 앞장에 서야 한다. 이에 있어서도 서로 돕고 배워줌으로써 기술 기능 수준과 사업 수준을 한 급 이상씩 높이여 생산을 보다 높은 과학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도록 하여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여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자재, 원료를 최대한으로 절약할 데 대한 것이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여 있다. 규정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항상 집단주의와 혁명적 동지애의 정신에서 다음 교대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며 다른 기대, 나아가서는 작업반과 직장의 모든 기대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면서 수행할 것이 지적되여 있다.

규정에는 또한 이 운동에 참가하는 절차와 《붉은 기대》 칭호 수여 대상 추천 및 수여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여 있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교대별로가 아니라 세 교대의 기대공 모두가 동시에 준비하고 통일적 목적을 가지고 민청 분조 앞에서 공동적으로 결의하고 참가하게 되여 있다. 《붉은 기대》 칭호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수여하기로 되여 있다. 즉 매월 직장 민청 위원회가 평가하여 우수한 기대에는 이 운동 참가자 도표에 《붉은 별》하나씩 그려 주는데 3 개의 《붉은 별》이 도표에 그려져야 수여 대상으로 추천될 수 있다. 《2 중 붉은 기대》, 《3 중 붉은 기대》 칭호도 수여하게 되여 있는데 그것은 다른 기대들을 《붉은 기대》로 추켜 올려야 한다. 《붉은 기대》 칭호를 수여 받는 기대는 《붉은 별》을 그려 주며 그를 담당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붉은 등록장》에 등록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작업반의 모든 기대가 《붉은 기대》로 되면 《붉은 기대 작업반》 칭호를 주고 《붉은 기대》 기'발을 수여하게 되여 있다.

이렇게 작성된 규정은 얼마 후에 공장 내 게시판마다에 나붙었으며 구락부와 청년들의 각종 모임에서 광범히 소개되였다.

공장 내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해당 민청 분조에 이 운동에 참가할 것을 제기해 나섰다. 그리하여 규정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 주일 간도 채 못 되는 기간에 300 여 대의 기대 설비를 담당한 청년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점검 보수공, 설비 담당제 성원들도 참가했다.

이 운동이 전개되자 모든 직장의 기대 설비를 담당한 청년들의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 났다. 발전기 직장의 125 밀리 보링반을 담당한 오 승록, 로 윤린, 서 광호 동무들은 이 운동에 관한 규정의 요구 대로 매일 작업을 계획하고 총화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교대를 위하여 더 많이 로력하면서 설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설비의 기술적 관리에 정통하며 기술 습득을 위해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목표보다 16%나 더 높은 91%의 수준으로 정상화하게 되였다. 공무 직장 련 영실 동무를 비롯한 이 직장의 적지 않은 청년들은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활동 내용을 옳게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전개된지 1 개월 만에는 여 직장의 절반 이상의 기대가 이 운동 참가자 도표에 한 개씩의 《붉은 별》을 그려 넣게 되였다.

뢰 종근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5월에는 년초보다 10%나 더 설비 리용률을 높였다. 그리하여 이 작업반의 적지 않은 기대는 벌써 이때에 석달 계속 평가 기준을 돌파하여 《붉은 기대》 칭호를 받았으며 그들의 기대에는 《붉은 별》을 그려 넣게 되였다. 매개 작업반들에서는 하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우선 기대들의 점검 정형, 작업반이 그날 할일 그리고 매개 기대공들이 할 작업량, 그에 따르는 도면을 충분히 료해하군 하였다. 그런 다음 소재, 공구, 지구, 청소용 걸레 등의 보유 상태를 검토하며 모든 작업 준비가 철저히 되였다고 인정될 때에 일시에 기대 앞에 다가 선다. 그리하여 하루 일을 수상 동지의 붉은 전사답게 자기의 투쟁 목표를 어김 없이 초과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다음 작업에 달라 붙군 하였다.

작업 시간에는 이미 체득한 합리적인 작업 방법에 의하여 조작을 정확히 하며 기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였다.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정된 규정 대로 《한 번 더 보기》로써 그의 질을 자체로 확인한다.

하루 일을 마치면 매 개인이 기대 청소 정비를 한다. 그런 다음 엄숙히 선서한 대로 작업을 훌륭이 수행하였다고 작업반원들 모두가 인정할 때는 매 개인이 자지의 수첩에 수상 동지의 붉은 전사답게 그 이의 교시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는 표식의 《붉은 별》 하나를 그려넣군 한다. 그런 후에 진행되는 작업반의 하루총화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내놓고 교환하며 다음 날 할 일을 알고 투쟁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였다.

우리공장 청년들 속에서의 《붉은 기대》 쟁취 운동. 그것이 발기된 때로부터 한 해 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공장의 1천 400 여 명의 전체 기대 설비 담당한 청년들이 망라된 이 운동은 커다란 활력을 가지고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기대들 중 절대 다수는 《붉은 기대》 칭호를 받고 《2 중 붉은 기대》 칭호 쟁취에 일떠서고 있다.

다른 기대들도 이 운동 참가자 도표에 두 번씩 《붉은 별》을 그려 넣게 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붉은 기대》의 칭호를 쟁취할 확신성밑에 눈부시게 투쟁하고 있다.

이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자체의 부주의로 인한 기대 정지 시간은 근절되였다. 가공 청년 직장 청년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설비 리용률을 10% 이상이나 더 높였으며 작년도 직장 앞에 부과되였던 국가 계획을 3 개월 이상 앞당겨 공장적으로 맨 먼저 초과 수행하였다. 지난 해 6월에 이 운동에 참가한 기계화 청년 직장 오 능 동무와 그와 한 기대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선반기의 리용률을 80%로, 로동 생산 능률을 150%로 각각 높이였다.

이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는 수백 건의 기술 혁신안이 제기되여 실현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거의 1 급씩 더 높아졌다.

재해에 들어 서서 우리 공장의 설비 리용률은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데 중요하게는 이 운동이 심화 발전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여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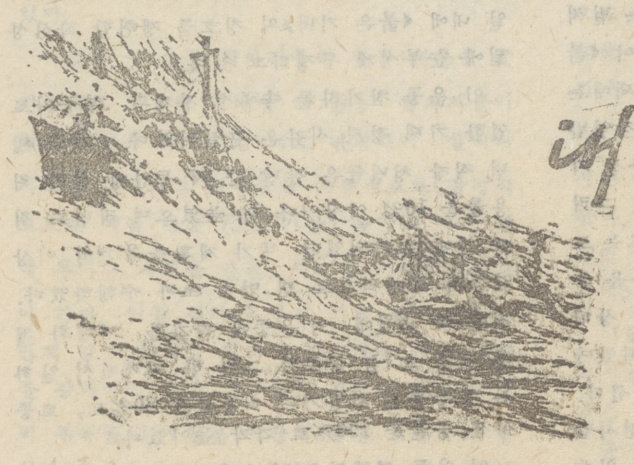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은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데서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집단주의와 혁명적 동지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공장 기대 설비를 담당한 청년들 속에서는 자기의 기대, 자기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작업반의 기대, 공장의 모든 설비를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게 되였으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여도 집단이 달라 붙어 일시에 해결해 나가는 미풍이 확립되고 있다.

우리 공장 청년들의 실제 투쟁 행정은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이 새로 확립된 기업 관리 체계를 공고 발전시키며 설비 관리를 강화함에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참가시키는 선진적이며 적극적인 형태의 하나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수필

가진의 영웅들에 대한 생각



김 병훈

사람의 진가를 판명하려면 그 어떤 비상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환경 속에서 시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편견일 것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 용감성과 불요불굴성, 자기 희생적인 동지애 같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특질들의 발현은 물론 비상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 형태의 집중성, 명료성과 관련된 문제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강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특질들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축적되며 시험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혁명을 위한 우발적인 충직성이나 용감성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진의 영웅들을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동해의 어느 한 자그마한 수산 사업소의 저예망 민청호 557 호와 민청호 558 호의 36 명 어로공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시대의 영웅으로 온 세상 만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난적도 없고 다만 신문과 라지오 그리고 기록 영화를 통하여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그것만으로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라는 참다운 리념으로 충만된 우리 로동당 시대에 사는 참답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의 보람에 대하여 통절하게 생각하게 되였다.

폭풍이 인 바다를 헤치고 간신히 부두로 돌아 온 557 호가 558 호의 조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간의 지체도 없이 다시 배를 삼키려 드는 풍랑을 헤치고 구원의 길을 떠났다. 잘못하면 자신도 죽음의 길에 이어지는 줄 알면서도 배에서는 누구 한사람 동요도 주저도 없이 바다로 뛰쳐 나가며 558 호를 찾아 헤매이는 것이다.

그보다도 558 호를 끌다끌다 예삭줄은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게다가 557 호 자신의 추진기마저 로프에 감겨 고장이 났을 때도, 그리고 그 고장을 겨우 고치고 났을 때는 이미 혼자서 항구로 돌아 갈 연유만이 겨우 남았을 때에도,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라고 웨치면서 558 호를 다시 찾아 떠나는 그 심정, 그 심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지 우애심이라는 그 한 마디로는 너무도 표현이 약하며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조난 당한 배에서는 어떠하였는가.

마지막 한 고뿌의 물이 남았다. 그 한 고뿌를 한 모금씩 마시자고 열 여덟 명 선원에게 돌리였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처음에 돌린 사람의 손에 그 대로 찰랑찰랑 물이 고인 채로 고뿌가 되돌아 온다.

또한 배 우에는 숨쉴 새 없이 파도가 들씌우고 갑판 우에는 순식간에 얼음산이 엉켜 붙는다. 어로공들은 몸도 옷도 팟팟한 얼음'덩이가 되면서도, 손끝이 얼어 터지면서도 그 얼음을 까내고 있다. 그런데 세포 위원장은 말 없이 어부들 사이로 돌아 가면서 그 얼음'장 같이 된 어부들의 손을 한 사람씩 자기의 앞가슴을 헤치고 푹 묻어서 녹여 주고는 또 다음 어부에게로 다가 간다. 그의 가슴이라고 화독을 안았겠는가. 단지 그의 가슴에는 화독보다 뜨거운 당증이 안기여 있을 따름이였다.

또한 로쁘를 건네느라고 557 호와 어기다가 그만 파도에 밀리여 배와 배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였다. 이 때에 자기의 몸으로 배의 충돌을 막으려고 배'전에 몸을 던진 젊은 어로공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만 동지 우애심이라는 한 마디 말로서는 너무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심장이 이렇게 뜨거우며, 불타며 끓어 번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상한 환경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미 그 어떤 환경에서도 심장을 불태울 《밑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밑불》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불요불굴하며 영원할 수 있는 마치 태양과 같은 것이여야 한다.

그것은 백두산 기슭에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항일 빨찌산의 고매한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 정신이다. 인간의 가장 높은 품성으로서의 이 혁명 정신은 우리 당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가진의 영웅들까지도 포함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이 심어졌기 때문에만 비상한 환경에서도 일상사 같이 역경을 이겨내며 기적을 창조하며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다.

만일 폭풍 이는 바다에 자본가들이 탄 두 배가 있다고 하자! 한 배가 다른 한 배를 희생시켜야 살아 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두 배는 곧 피비린내 나는 격투를 벌렸을 것이고 약자는 강자에 먹히우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이 자본가들의 승냥이 법칙이다. 사람들이 제 목숨까지도 바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이끌고 살아가자는 정신은 바로 우리 당, 우리 사회 제도 아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삶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제도 하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수록 행복한 노릇이다. 물질적으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은 생활에 닥쳐 올 그 어떤 위구,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그것이 백만이던 천만이던 모든 사람들

을 자기 자신처럼 믿고 의지하고 활개 펴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제 살을 떼여 남의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며, 아직 애어린 처녀 선생이 의사도 아닌 그가 앉은뱅이가 된 어린이의 불행을 제 자식 일 같이 가슴아퍼 여기여 끝내 굽은 등을 고치여 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한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나어린 소년들이 불구가 된 발 때문에 학교에 못 다니는 동무를 위하여 눈오나 비'바람부나 10년 세월을 한결 같이 등에 업고 학교에 다닌 이야기도 있다.

전재 고아들을 여러 명씩이나 데려다 제아들 딸 같이 고이 키우고 있는 무명의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바로 우리의 온 강토는 믿음과 사랑과 열정과 투지에 가득차 있으니 이 속에서 바로 바다의 불사조들인 가진의 영웅들도 나왔던 것이다.

558 호선이 언제 파도 속에 묻혀 버릴지 모를 아슬아슬한 역경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문득 눈앞에 섬이 나타난 일도 있었다. 거기다 대인다면 어쨌던 우선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열여덟 명은 단호히 고개를 흔든다. 그것은 그들을 지난 날 같이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지주와 자본가들, 원쑤들의 소굴인 것이다. 그들의 몸에는 원쑤들이 입힌 상처 자국이 너무도 생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튼튼한 계급적 립장과 투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금방 파도 속에 잠겨 버릴 수 있는 아득한 순간에도 절망을 모르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침착하게 위기를 맞받아 싸웠다.

그것은 오직 그들에게 조국과 당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조국과 의 련결이 오직 가냘픈 한 가닥의 전파에만 달아 있을 때에도 그들은 조국과 당의 크낙하고 뜨거운 품을 지척에 느꼈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고독과 절망을 박찰 수 있었으며 용기 백 배하여 폭풍과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각기 자랑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조국을 가진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불과 십 여 년 전만 해도 조국을 잃고 노예살이를 하던 우리 조선 사람이 당과 수령의 덕으로 이제 세상에서도 이름 떨치는 부강하고 슬기로운 조국을 가졌으니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없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는 언제 어떤 역경에서나 온 몸에 힘이 백 배로 솟구치여 두려운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가진의 영웅들은 광란하는 대자연을 정복하고 승리하였으며 참된 사람들의 시대의 모범을 온 세상에 보여 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진의 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대대손손 전설처럼 전해지면서 참된 사람들의 모범으로 전해질 것이다.



애국 시가

제목 없이

리 순신

스산한 빗바람에 내 어이 잠들랴
창자를 쥐어 뜯듯 아픈 생각이여
살점을 도려 내듯 쓰라린 이 가슴
산과 강은, 처참한 빛이요
날짐승、길짐승도 슬피 우누나
나라는 처참하게 위태로운 이 때
위험에서 구해 낼 자 그 누구냐
나라를 회복자니 옛 장사 생각 나고
원쑤를 무찔자니 영웅 재사 그립도다。
국토를 못지킨 체
날을 보냈으니
나라를 속인 듯
죄스럽고나!



고국

최 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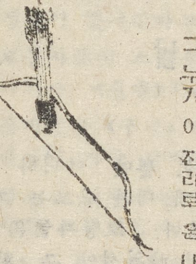
한 밤중에 일어 나 바라 보노라
북두칠성 그 아래 아득한 고국 땅을
백발이 성성하여 왜놈들께 욕보누나
솟아 나는 분한 눈물 그지 없어라
일만 번 죽고 죽어 또 죽더라도
내 어이 원쑤놈의 부귀를 탐내랴
한평생 읽고 읽어 명심하노라
반고에 기리 빛난 우리 력사를…

※ 최 익현은 一九〇五년 을사 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우다가 원쑤들에게 피검되여 대마도로 압송되여 이 시를 썼다。

나라 근심

정 철

나라를 근심하며 금산사에 묵는 열흘
애가 닳아 마치도 삼 년 맞잡이
저녁의 밀물은 찬바람을 몰아 오고
돌아 가는 기러기도 비분한 울음。
원쑤를 노리여 자주 칼을 드노라、
백성들의 죽음 앞에 찢어지는 가슴이여
출전을 앞두고 다지는 굳은 맹세
다시 한번 출진가를 높이 웨치노라



별

류 린석

한밤중 설한풍은 등잔불을 괴롭히고
헤여진 의관으로 처참히 앉았노라
늙은 몸은 고달프나 지조는 억세고
젊은 벗들 궁하나 절개만은 높아라
밤이 길다하나 머지 않아 날이 새리
추움이 제아모리 모질고 사나워도
땅 속의 열도만은 얼구지 못 하리
강하고 약함은 한 때의 사정이라
옳고 그름은 마침내 판결되리
그 누가 이 진리로 온 나라 깨우치리。

※ 류 린석은 리조 말기 일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조선의 의병 부대를 지휘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개선가도 드높이

황 현

군기는 휘날리고 전진고는 하늘을 친다。
밤과 낮을 잇대는 처절한 혈전
원쑤들을 무찌르고 회군하는 군사들
개선가 드높은데 휘영청 달도 밝다。

×

머리를 동여매고 전장에 나섰노라
어느덧 구렛나루 희뜩희뜩 성글었구나
원쑤를 무찌르는 만리 싸움의 길
군사들은 몸바쳐 나라를 지켜내네

×

무사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으라
망국의 조약으로 중한 목숨 살리겠다고
다시금 조정에
항의를 하여
끝까지 원쑤놈
들 멸살하고 말리
라!



통쾌한 노래

김 시습

내 긴 칼 빼여 드니
서리빛 하늘에 번쩍이네
한번 겨누어 태산을 가르고
두 번 휘두르며 사자처럼 소리 질러
앞으로 내달으니 거칠 것 전혀 없고
뒤로 물어서서 덤벼들 자 없이라
고르지 못 한 세상 모조리 쳐부시고
쳐부신 뒤에야 물러나 지키리라

부모들이 걸어온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자

광부 일가의 력사



김 종 남

승냥이 굴에서 35 년

지금으로부터 50 여 년 전의 일이다.

머리채를 늘인 총각과 상투를 튼 두 사나이가 평북 북진 땅에 찾아 들었다.

고의 잠뱅이에 짚신을 신고 괴나리 보'짐을 하나씩 진 그들은 이곳 금점판(운산 광산)을 찾아 온 사람들이란 것이 묻지 않아도 빤히 알렸다.

그들은 며칠 동안 미국 광주놈들의 지독한 《힘내기 시험》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밀차'군으로 광산에 들어 가게 되였다.

이들이 바로 16 세 나는 림·영호와 그의 아버지였다.

승냥이 굴에서의 고된 로동 생활이 시작되였다.

당시 어리석었던 봉건 통치배들을 롱락하여 이 광산을 손아귀에 넣은 미국 광주 웰헤폰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손톱만큼의 인간의 량심도 없는 악독한 놈이였다. 될 수 있으면 밑천을 들이지 않고 금을 캐 가려는 강도의 심'보를 가진 놈들은 조선 로동자들에게 순전한 원시적 로동을 강요하였다.

로동자들은 벌써 아침 5시에는 일터로 가야 했으며 달'빛을 지고야 집에 돌아 왔다. 로동 안전 시설이란 전혀 없었다. 광부들은 한 벌밖에 없는, 입고 자던 그 대로의 꿰진 잠뱅이 바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죽음의 굴 속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일은 힘들고 고되였다. 뿐만 아니라 언제 닥쳐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들을 뼈'골까지 마르게 하였다. 로동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굴 속에서 나와서야 그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림 영호와 그의 아버지는 밀차를 굴 안으로 밀고 들어 가 다 썩어져 가는 사닥다리와 짐통을 타고 다시 수십 수백 메터나 되는 내리'굴을 내려 가서 광석을 등에 지고 올라 와야 했다.

로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없는 날이란 거의 없었다.

일하기 시작한지 며칠 안 되여 림 영호는 벌써 동료의 참혹한 죽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가 대바위'굴에서 광석을 져 올리고 있을 때 굴 속에서 갑자기 아우성 소리가 일어 났다.

《짐통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쪽으로 몰려 갔다. 그러나 수백 척 내리'굴에는 다만 끊어진 바오라기가 흔들리고 있을 뿐 그 속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나 많은 광부들이 몸에 바'줄을 감고 내려 가 사지가 흩어진 시체를 끌어 올렸다. 그것은 이웃에 사는 김 호관의 아버지였다.

많고 많은 재난들에서도 그가 35 세 때에 당한 일은 지금도 몸에 소름이 돋힐 정도로 기억에 생생하다.

그 때 지주부였던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지주부와 같이 다리'골 굴에서 일하였다. 미국놈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그 때에도 고물에서 회수한 다 썩어져 가는 지주목을 세울 것을 강요하였다. 썩은 지주목은 갑자기 부러져 굴이 무너졌다.

동료들의 희생적인 로력으로 겨우 한나절만에 반송장이 되여 구출된 그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이'발은 거의다 부러졌다. 허리는 움직일 수 없게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러한 불상사는 매일과 같이 일어 났다.

미국 야수들은 조선 로동자 한 사람의 값은 지주목 한 대보다 더 싸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국 광산주는 사고를 없이 할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로동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생산이 떨어진다고 야단쳤다. 미국 광주놈이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낸 것은 갱내에서만이 아니다. 《십쌀》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로동자들을 《구제》 한다는 간판 밑에 그 중 나쁜 쌀에다 가장 값비싼 쌀값의 2할을 덧붙여 외상으로 내주고는 쌀값과 리자를 받아 내는 혹독한 고리대였다.

《십쌀》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파멸에로 이끌어 갔다.

림 영호가 30 고개를 훨씬 넘긴 어느 해였다. 하루는 미국놈 앞잡이 도가란 놈이 몇 놈의 불량배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놈들은 다짜고짜 이 집 다섯 식구를 집 밖으로 내쫓고 그들이 쓰던 토굴집과 가재 도구를 차압하였다.

그 때는 흰 눈이 온 강산을 뒤덮고 있는 엄동설한이였다. 더구나 만삭이 된 안해는 금시 아이를 낳을 것만 같았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남의 집 마루밭에 우선 거처를 잡았고 안해는 여기서 해산을 하였다.

이 불의의 파산은 바로 그 《자선》적 의의를 가진다는 《십쌀》의 《혜택》이였다.

여섯 달 전에 림 영호는 몸이 아파 며칠간 일을 나가지 못 했다.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는 할 수 없이 《십쌀》 두어 말을 가져다 먹었었다.

그러나 이 《십쌀》은 다시 《십쌀》을 먹게 하였고 그 빚은 리자를, 리자는 다시 리자를 쳐서 결국 여섯 달 후에는 옴짝달싹 못 하게 되여 버렸던 것이다.

노예주로서의 미국놈들의 이 《훌륭한 솜씨》는 비단 림 영호에게만 이러한 재난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함경도에서 왔다고 하여 경도 칠성이라고 불리우던 한 광부가 있었다. 그는 《십쌀》에 얽매여 수 년간 무상 로동을 강요 당했고 나중에는 폐병에 걸려 폐인이 되고 말았다. 억울한 세상을 원망하던 나머지 그는 자기 몸에다 다이나마이트를 둘러 감고 빚을 받으러 온 미국놈 앞잡이를 껴안고 폭사하였다.

《박애》를 떠들며 《구세주》의 이름으로 경영하던 놈들의 병원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하여서는 인명까지도 서슴없이 빼앗는 흉악한 소굴이였다.

놈들이 좋은 약을 쓸리는 없고 게다가 약값은 비싸게 받아 먹었다. 그리고 엄청난 치료비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굴에서 다쳐 나온 광부들의 팔다리를 사정없이 잘라 버렸다.

지어 좀 심한 환자는 어차피 죽는 사람이라 해서 독약을 먹여 죽이기까지 하였다.

미국 광주놈들을 대신하여 일본놈들이 그 자리에 들어 앉았다.



그러나 승냥이 굴은 변하지 않았다. 사갱 내에 전기 설비를 잘 하지 않은 데로부터 1941년 교통갱에서는 대화재가 일어 났다.

이 때 갱내로 통한 수관을 터뜨려 불을 끄든가 또한 통기 구멍을 열어 놓았더라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산주놈들은 수관이 터지는 것이 아까웠고 갱내에 침수되는 것이 걱정되였으며 통기 구멍을 관리하기가 시끄러웠다.

놈들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결과 굴 안에 있던 27 명의 로동자들은 한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 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유가족들과 로동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몰려 들었지만 대거 출동한 일제 경찰과 헌병들은 그들을 모조리 감금하고 위협 탄압하였다.

림 영호 일가는 35 년 간을 이렇게 승냥이 굴에서 살았다.

자애로운 당, 고마운 인민 주권

해방이 되였다.

50 년 동안을 외래 침략자들의 발굽 아래 짓밟혔던 이 곳 북진 일대의 산야들에도 봄은 찾아왔다.

돈만 알고 금만 알던 미국놈 때나 일본놈 때와는 세상이 딴 판으로 달라졌다.

갱내 작업이 기계화되고 모든 안전 시설이 갖추어졌다. 사실 이전 같으면 수십 메터에 하나씩 켜진 초'불'빛에 겨우 앞을 내다 보면서 수백 척 굴 속에서 광석을 등에 지고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렸는데 이젠 본갱으로 광차'길이 쭉 뻗어 들어 가고 내리'굴이나 올리'굴 할것 없이 권양기가 설치되여 갱 내에서 등'짐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분한 안전 장치가 되여 있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갱속을 오르내리게 되였다.

굴진공들은 정으로 광석을 까내는 대신 기계로 구멍을 뚫게 되였으며 지주공들은 지주목을 메고 굴 속으로 들어 가는 일이 전혀 없게 되였다.

광산에서 그리고 조국의 모든 부문에서 변혁이 일어나듯 림 영호 광부 일가에도 계속 새로운 변혁이 일어 났다.

그럴 때마다 이 집안 식구들은 해방의 기쁨, 당과 인민 정권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하루는 일에서 돌아 온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정색하여 꿇어 앉았다. 그는 좀체로 입을 열기 힘들어 하다가 겨우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나더러 광산 지배인을 하랍니다.》

《무엇, 지배인?》

아버지도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막로동'군의 아들이 지배인이라, 그는 감개무량해 하였다. 그것은 비단 아들의 발전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막로동'군이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세상, 해방 전에는 글을 잘 모르던 아들을 광산 전문 학교까지 나오게 하고 국가의 큰 일'군으로 키워 준 당과 정부에 대한 고마움으로서였다.

《못 할 일이야 없겠지, 설사 힘이 없으면 밤'잠을 자지 않고 남의 두세 배 일해서 맡은 일은 해 내야 하느니라. 지배인이 되여도 미국놈 때나 일본놈 때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 날 그는 일가를 다 모여 앉히고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40 년 전에 이 고을을 찾아 올 때부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제도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타일렀다.

맏아들과 더불어 작은 아들들도 모두 이 광산에서 로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다 훌륭히 발전하였다.

× ×

스물 두 자손을 가진 복스러운 사람, 이것은 운산 광산 로동자들이 림 영호 광부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일하는 맏아들, 철벽 같은 조국의 방선에 선 인민군 군관인 세째 아들 병국, 지질 탐사대에서 일하는 다섯째 아들 병식,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그의 딸들과 손녀들…

해방 전에는 살림살이에 몹시도 쪼들려 낳은 아이들이 부담으로만 되였는데 그들이 오늘은 공화국의 떳떳한 역군으로, 대학생으로 되였다.

결국 이 집안에서 나온 전문, 대학생은 6 명이나 된다. 그 중에는 앞으로 채광 기사, 의사가 될 사람도 있다.

자애로운 당, 고마운 인민 주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림 영호 광부의 가슴은 언제나 벅찬 감격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기에 림 영호 광부는 말한다.

《사회주의 제도— 이것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장 세 극

민청은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 조직이다. 따라서 민청이 자기의 강령과 규약에 규정한 투쟁 목표를 성과 있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민청원들이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민청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민청에 가맹할 때에 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민청 조직 생활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민청 조직이 주는 혁명적 임무를 어김 없이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자기 생명까지 바쳐 투쟁할 것을 서약하였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을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규률과 통제에 얽매여 마지 못해 하며 민청 조직에서 분공이나 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청 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청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민청원들은 우선 민청 규약 학습을 강화하여 그의 본질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며 규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이란 민청원이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민청 규약은 민청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준칙이다.

민청 규약에는 민청원들이 훌륭한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며 민청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규범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료하게 규정되여 있다. 따라서 민청 조직의 공고성과 전투력, 민청 사업의 성과는 매개 민청원들이 민청의 규약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청원이 규약상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규약 학습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그의 내용과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민청원이 민청 규약상 의무와 민청 생활의 원칙, 민청 규률의 본질을 잘 모르고서는 민청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없다.

때문에 민청원은 항상 민청 규약을 깊이 학습하는 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민청원은 항상 민청 규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연구하여 그에 담겨진 내용을 완전히 통달하여야 하며 《어떻게 하면 민청 규약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실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청 규약에 명시된 민청원의 의무 조항을 반복하여 연구하면서 그에 완전히 정통하여야 한다.

정통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무 조항에 정통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기본 내용과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알며 그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청 규약 학습을 반드시 매 시기 제기되는 혁명 과업 및 민청원들의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민청원들은 규약 학습을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당면하게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 민청원들이 자체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민청 단체들이 규약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직 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청원은 자기의 민청 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민청원의 영예를 견지하며 규약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조직적 각성을 높이며 혁명적 수양을 쌓는 중요한 방도이다. 자기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반성하여 결함을 제때에 찾고 그를 대담하게 시정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혁명 전사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청원은 매일의 사업과 생활이 끝나면 그 날에 민청원으로서 어떻게 사업하고 행동하였는가를 스스로 총화하는 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청 생활을 총화하는 초급 민청 단체 총회와 분조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민청 생활 정형을 자신이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총화함으로써 조직의 평가와 방조를 받아 민청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민청 생활 총화를 잘 하자면 그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청 생활 총화와 일반 민청 회의를 옳게 구분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 총화는 주로 민청 규약상 의무와 분공된 과업 중에서 실행한 것은 무엇이며 실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실행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였는가 그리고 자기의 조직 사상 생활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한다.

따라서 민청 생활 총화와 일반 민청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여야 한다.

즉 일반 민청 회의는 매 시기 민청 조직 앞에 제기되는 혁명 과업 실행에로 민청원들을 조직 동원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 정형을 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민청 생활 총화는 매개 민청원들 자신이 자각적으로 민청 규약의 요구에 비추어 자기 민청 생활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여 민청 조직에 보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전체 민청원들이 민청 규약상 의무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그 정형을 자체가 검토 총화하면서 부족점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과 습성을 배양할 수 있다.

민청 생활 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자면 총화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민청 생활 총화는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을 개별적으로 청취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고치도록 동지적 충고와 방조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우선 개별적 민청원들이 자기의 민청 생활 정형에 대하여 우점과 결함은 무엇이고 앞으로 결함을 어떻게 고치겠는가를 허심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민청 생활 총화를 검토와 추궁과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 총화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생활에서 위축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단결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은 건전한 민청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

반대로 자기 비판을 한다고 해서 매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회식》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진실한 자기 반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 민청원이 자기 민청 생활에 대하여 보고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동무들이 동지적 충고와 방조를 주며 해당 민청 단체 책임자가 결론을 한다.

동지들이 주는 의견과 결론은 어디까지나 개별적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에서 좋은 점은 응당하게 평가하면서 결함은 무엇인데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데 있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 주고 도와 주는 립장에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민청 생활 총화가 따뜻한 동지적 방조의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민청원들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지며 민청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은 더욱 원만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민청원은 민청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하며 민청의 결정과 조직에서 위임하는 분공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이 민청 회의에 정상적으로 준비있게 참가하여 문제 토의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며 민청 단체에서 주는 분공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민청 생활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민청 회의는 민청 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며 민청원들이 교양 훈련되는 학교이다. 민청원들은 민청 회의를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알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과업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분공을 받는다. 또한 민청 회의에서는 결정과 분공 실행 정형을 총화하며 동지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민청원들은 민청 회의를 통하여 혁명적으로 수양되고 단련된다. 그러므로 매개 민청원들은 민청 회의 특히 초급 민청 단체 총회와 분조 회의에 빠짐 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 모든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옳은 결정이 채택되도록 자기의 창발적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청원은 민청의 모든 결정과 조직에서 위임된 분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의 결정과 분공을 집행하는 과정은 민청원이 민청 규약상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곧 조직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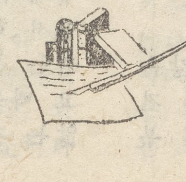
민청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분공을 조직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되 일단 다수 가결에 의하여 결정된 과업과 위임된 분공은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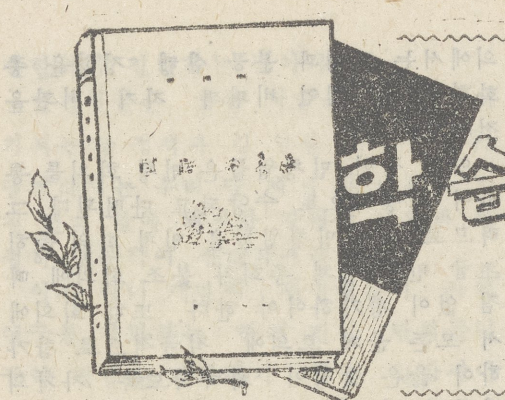
결정과 분공을 집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조직에 보고하고 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시기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이상과 같다.

민청 단체들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 수행에서 민청 생활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민청원들은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민청 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

백 선 욱

청년들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시절에는 생기 발랄하며 태산을 떠옮기고 바다도 막을만한 용맹스러운 힘과 왕성한 정열, 진리와 숭고한 리상에 대한 열화 같은 동경심과 진취성을 가지며 높은 리상과 보람찬 미래를 지향하면서 부단히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혁신적 기개와 창발성을 가진다. 청년들의 이 귀중한 특성들은 선진 과학 지식과 기술과 결합될 때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때문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임무는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다.

× ×

그런데 학습을 성과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확한 학습 목적과 학습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확립함과 함께 정확한 학습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는 학습에서 독자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고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은 실천 활동 과정에서 수 많은 사물과 현상들을 접촉하고 관찰하며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된다. 이 때 우리들은 그 사물과 현상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사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사고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고력이라는 것은 바로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사물과 현상들을 자립적으로 관찰 연구하여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적 사고력이 훌륭하게 발동되고 또 그것이 왕성하면 할수록 학습 과정에서 제기되는 곤난한 문제들을 능히 자립적으로 연구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고 폭 넓게, 보다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류의 과학 문화 발전의 보물고에 기여한 탁월한 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사물 현상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을 내리는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였다. 19세기 조선 인민이 낳은 탁월한 실학 사상가 정 다산 선생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고하고 배우지 않는 것과 배우고 사고하지 않는 것은 그 폐가 같다.》라고 말하였다.

만일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하지 않을 때에는 좋지 않은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떤 문제를 학습함에 있어서 사고력을 발동하지 않거나 또한 이미 학습한 문제를 가지고 실천 활동과 결부시켜 사고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독경식으로 명제나 공식을 암기나 하고 그것을 실지 생활에 활용할 줄 모르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학습은 산 지식, 혁명의 량식을 줄 수 없다.

독경식 학습 방법, 학습에서의 교조주의는 바로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하지 않는데 기인된다.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시키지 않고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외우듯이 맹목적으로 졸졸 따라 외우기만 한다면 자기가 학습하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리해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지식이라 해도 불명료하고 확고하지 못하다.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남의 나라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우리 나라 혁명 실천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학습에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근원을 밝히지 않은 채 다른 문제의 학습으로 넘어 간다면 학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지라도 어느 하나도 똑똑히 알지 못하며 자기 지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기가 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어는 그릇된 것일 때에도 그것은 완전 무결한 것으로 알며 결국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적게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아는 체 하는 현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에서 자립성이 없이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하는 것도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의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풀 대신에 남에게 의존해서 해명하려는 습관이 붙게 되면 그는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동시킬 수 없으며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지 않고 허무주의적으로 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기성 리론을 절대화하여 학습에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

원래 리론은 실천 투쟁을 통하여 부단히 보충 완성되여 나가며 새로운 결론으로 풍부해진다.

물리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에 원자는 그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물리학은 원자는 전자와 양자로 구성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호상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명한 세균 학자 빠스뙤르는 물질이 부패 변질하는 원인이 그 자체의 어떤 《힘》에 의하여 일어 난다는 리론을 부인하고 박테리야(세균)에 의한 것임을 실증하였다. 그는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박테리야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하여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은 학습과 실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면 우선 학습에 대한 옳은 립장과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학습 목적은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당과 혁명 위업에 복무하려는 데 있다. 우리의 학습이 자기 개체의《명예》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잘 살게 하려는 고상한 목적에서 출발될 때에만 사

고력이 더 원만히 발동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제기된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학습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실천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자립적으로 연구하며 제기된 문제를 주체성 있게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독자적인 사고력을 발동시킬 수 있으며 당면하게 제기되는 긴요한 문제 해결에로 자기의 력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또한 제기된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학습에서 창조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창조적인 학습이란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자립적으로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명적인 학습 방법이다.

학습은 그 자체가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이다.

물론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교조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교조주의는 바로 사물과 현상을 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줄 모르고 사고를 태만하여 자립적으로 사고할 대신에 남의 경험과 리론에 추종하며 모든 리론을 력사적으로 고찰할 줄 모르며 사물과 현상을 형이상학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난해한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분석 종합함으로써 본질적인 결론을 끄집어 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며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 나가면서 점차로 깊고 심오한 문제에로 들어 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배운 지식을 자신의 생활과 사업 및 투쟁에서 자립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독자적 사고의 기본 정신이다. 우리는 물론 교과서나 서적들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지식을 자기 생활과 결부시켜 학습하지 않는다면 사고력을 배양할 수 없다. 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우든지간에 실지 생활과 결부시켜 깊이 생각하고 부단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토론과 론쟁은 독자적 사고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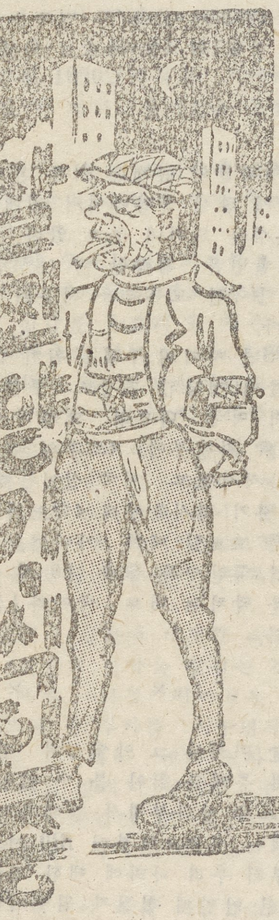
서적을 읽고 의문을 가진 문제의 내용에 대해 론쟁을 하면 의문을 풀 수 있고 내용을 보다 넓고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읽어서 혼자 생각하면 주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론쟁한다면 혼자 생각하는 때와는 달리 보다 많은 지식이 탐구되고 보충된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토론과 론쟁은 학습 열의를 부단히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탐구욕과 사고력을 높여 준다. 토론과 론쟁 과정에서 과학 발전의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는 것은 바로 론쟁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력이 최대한으로 발동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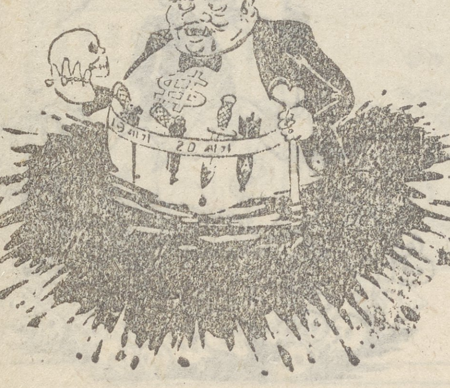
전체 청년들은 우리의 학습 목적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빨리 촉진시키며 옳게 수행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학습에서 독자적 사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함으로써 나라의 전면적 기술 혁신에서 앞장에 서 나가자.

피로 물든 양키의 죄악사 (1)

인간 살육으로 살찐 양키 식인종

리 창국





력사도, 문화도, 민족도 없는 미국 양키들에게 오직 있다면 인간 살육의 피묻은 발톱으로 인류 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반점을 남겼다는 것 뿐이다.

미국은 《피 속에 솟아 있고 피 속에 잠겨 있다.》 이 말은 미국 작가 쟈크 론돈 자신이 한 것이다. 실로 양키는 식인종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양키는 수백 만의 억압 받고 착취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로 살쪘다. 오늘 이 식인종의 후예인 미제는 자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줌도 못 되는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수 천억의 딸라는 수 천만의 사망자들과 불구자들의 흘린 피바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양키들에게 있어서 사람 잡는 것은 하나의《고상한》 도락으로, 《미거》로 뿌리 깊은 생활 양식으로 되고 있다.

× ×

1606년에 영국 왕 젬즈 1 세의 명령 하에 아메리카를 정복할 목적으로 《런던 회사》와 《모리스 회사》가 영국을 떠났다.

이 회사는 선교사들과 불한당들 그리고 죄인들로 구성된 강도단을 이끌고 대서양에 면하고 있는 미국의 남부의 네라웰만에 상륙하였다.

이것은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의 서막이였다.

본토에 들어 선 식민주의자들은 《죽은 인디안만이 좋다》는 구호 하에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후 미국 본토로 깊이 침투하여 들어 간 양키의 선조들은 1637년 6월 피쿼트 산 속에 이르러 낮잠 자는 500 명의 인디안들에 대하여 일대 《공격전》을 전개하여 모조리 학살하였다.

이러한 살육 행위는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항이 빈발하던 1660년 이후부터 더욱 격심하여 졌다.

1675년부터 3 년 간에 뉴잉글란드에서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더욱 잔악한 인간 도살 행위를 감행하였다. 력사에서 《필리프왕과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에서 미국 식인종들은 수 년간이나 인디안들에 대한 전률할 살륙전을 전개하였다.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의 추장인 필리프왕을 야수적으로 살해하고 《반항의 씨》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여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을 몰살시키고 필리프왕의 머리에서 턱뼈를 깎아 내여 그것을 《기념품》으로 가져 갔다.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내 디딘 때로부터 170 여 년 간에 100 여 차의 살륙전을 전개하였으며 전체 북아메리카를 인디안들의 붉은 피로 물들였다.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디안들의 시체를 바다'물에 처넣었던지 서반아 목사 라스카 카스는 《하이티로부터 류꼐이도로 향하는 선박이 라침판 없이 도중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바다에 떠 있는 시체만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 곳으로 갔다》고 말하였다.

양키들은 1812년 알곤킨 부족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수 많은 인디안들을 살륙하고 그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 거액의 《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그의 추장인 테쿰세의 시체에서 전신의 가죽을 벗기고 면도칼을 가는 혁띠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지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1814년에 대중적 규모로 인디안을 도살하기 위하여 인디안의 머리 가죽에 현상을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조례로서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디안의 머리 가죽 한 장에 50 딸라의 상금을 지불하기로 되여 있었다.

1814년에 인디아나주에서 인디안들의 대폭동이 일어 났을 때 당시의 미국 대통령 엔두류 잭손이라는 자는 완전히 무참하게 이 폭동을 진압하고 인디안들을 피바다에 잠기게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병균을 류포시켜 인디안들을 멸살시키는 흉모까지 꾸며 냈다. 이 식인종들은 사망률이 높은 천연두, 호렬자, 발진티부스 등 병균을 인디안들에게 류포시켜 수 많은 인디안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해적선이 미국 본토에 기여 들던 때에 150만을 헤아리던 70 여 개의 인디안 종족들은 오늘 거의 멸족 상태에 처하고 있다.

인구수에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아라바고, 파라니, 아깡 등 인디안 종족들은 그 수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으며 소위 《인디안 전용지》에서 공원의 사슴과 같이 《금렵 동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인류 력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제노사이드》(한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정책)의 《모국》으로 되였다.

× ×

흡혈귀들의 만행은 미국 본토에서만 아니라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피에 굶주린 식인종의 본성을 드러내 놓고 있다. 미국 양키 놈들은 비률빈을 침략할 때 아무런 무장도 없는 소수 종족인 모류족을 최후의 한명까지 몰살하였다.

1898년 자기의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비률빈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도 무참히 진압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리는 비률빈에 있는 미국 사령부에 《최후의 한 명까지 소멸하라》고 지시했고 미국 살인 장군 스미트라는 자는 자기 병사들에게 《죽이라! 불 태우라! 지금은 포로할 때가 아니다. 그대들이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좋다. 10 세 이상의 모든 성년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라는 포고를 내렸다.

× ×

오늘 미제는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서 세계 력사에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살인 만행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지금으로부터 130 여 년 전 19 세기 중엽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여 온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다.

미제는 남반부에 발을 들어 논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흉악한 살인자로, 흡혈귀로 나타



피로 물든 양키의 죄악사

났다.

양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지배를 확립하여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인민들을 죽였다.

1948년 4월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에 제주도에서만도 7만 여 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살인귀들은 려수, 순천 사건시에 순천 시내 300 여 명의 인민들을 순천군 국민 학교에 몰아 넣고 총살하였다.

이 때 미국 대사 무쵸는 《혐의자들을 과단성 있게 처리한 것은 현명한 방책으로 본다… 비상 수단으로써 진압을 유효케 한 것은 칭찬할지언정 비난할 여지가 없다.》 라고까지 했다. 이렇게 하여 1949년 한 해 동안에만도 10만 9천 여 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조선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군사 명령에서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했다.

미제 침략군은 전쟁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행동하였다.

한 미군 승냥이가 신문에 게재한 조선 전쟁 《경험담》에는 《면바로 면상을 갈기는 것이 나에게는 마음에 든다. …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보고 그 자리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나는 참다운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면바로 관자노리를 겨누며 나의 발사의 결과로 두개골이 날아 가고 안공에서 눈알이 쏟아질 때 나는 더 없이 가장 멋들어진 사격을 했다는 것을 안다…》 고 썼다.

우리는 신천군에서의 미제 식인종들의 살인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1950년 10월 18일 미군 중위 해리슨의 명령에 의하여 약 900 명의 인민들을 방공호에 몰아 넣은 다음 의복을 벗기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산 채로 태워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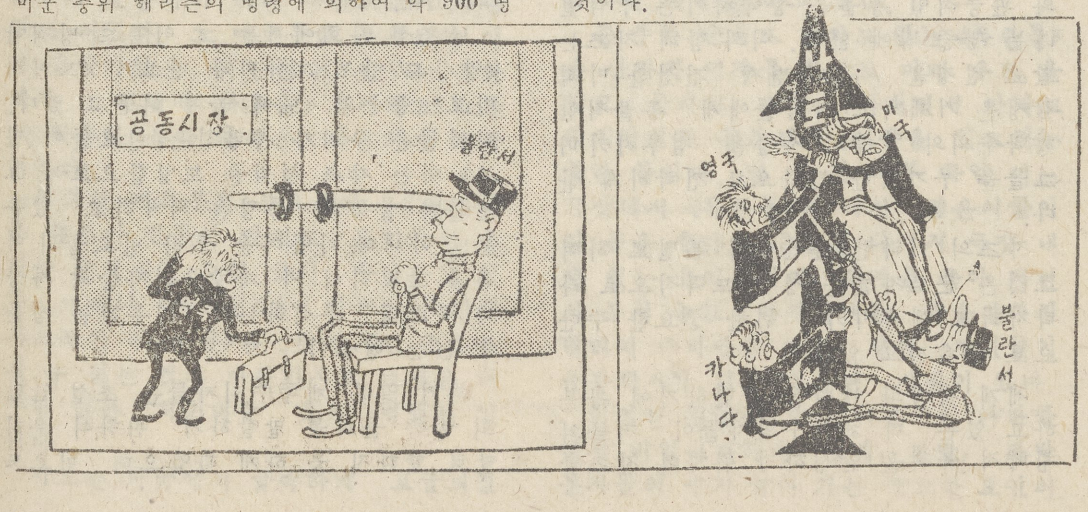
12월 7일 신천군 원암리에 있는 두 창고에 900 여 명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몰아 넣고 휘발유를 퍼붓고 불을 지르고 나서 창문으로부터 100 여 개의 수류탄을 마구 던져 학살하였다.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침입한 양키들은 모범 농민 박 도세를 코와 귀를 철사로 꿰뚫고 량 손에 총창을 꽂고 이마에는 모범 농민으로 받았던 표창장을 못으로 박아 붙이고 동리로 끌고 다니다가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인류 력사의 어느한 페지에서도 미제가 감행한 그와 같은 잔악성과 야수성을 릉가한 그런 만행을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제 야수들은 총살, 타살, 생매장 등 방법은 고사하고 코와 귀를 꿰여 끌고 다니다가 죽이며, 눈알을 뽑으며, 머리 가죽이나 몸가죽을 벗겨서 죽이며, 입술을 도려 내고 혀를 자르며, 끓는 물에 삶아 죽인 귀축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 해서 양키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안들에 감행하던 수법대로 애국자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 《기념품》으로 가져 갔다.

사람의 탈을 쓴 두 발 가진 짐승들인 미제의 살인 만행은 남반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피로 배를 불린 미제 야수들이 우리 조국 땅에서 감행한 이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과 인민은 두 발 가진 승냥이 양키들에게 높은 피 값을 받아 내야 하며 기어이 천 백 배의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고야 말 것이다.



쟈즈의 반동성

신 도 선

오늘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과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쟈즈가 범람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정서 생활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들을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에로 몰아 넣는 매우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쟈즈—이것은 불균형적이며 미친듯한 률동과 비정상적인 선률 토막 그리고 여러 음들의 혼잡한 배합과 광란적인 춤으로 엮어진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음악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을 감상하게 된다. 매개 작품들에 담겨진 내용을 통하여 주인공들의 고상한 정신적, 도덕적 풍모를 보게 되며 또한 거기에서 교양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한 예술적 수단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를 느끼며 미적 감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쟈즈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며 오직 억만 장사들의 저속한 취미와 관능적인 흥분을 충족시키는 구역질나는 광증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쟈즈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건전한 미적 감정을 거세하고 사람들에게 동물적인 향락주의와 굴종의 사상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한다.

쟈즈의 이러한 반인민적 본질로 하여 그것은 근로자들을 정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예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세계 재패의 야망을 실현하기에 광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쟈즈를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리용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쟈즈를 류포시킴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자국 내 근로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약화시키며 저들의 예속하에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현실만 보더라도 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쟈즈를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무기력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 가며 그들 속에서 굴종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쟈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현숙한 안해가 정로에서 미끄러져 어린 자식까지 버리고 나돌아 다니는 일과 미혼기 처녀들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빠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남조선 출판물에서까지도 개탄하고 있는 것은 쟈즈가 범람하고 있는 남조선 현실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구한 전통과 우수한 예술성을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책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쟈즈를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 사회에서는 그 이름도 망칙한 《양산도 만보》,《아리랑 만보》, 《도라지 만보》 등등의 《노래》들이 나돌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요들에《만보》라는 쟈즈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그 선률과 률동의 특징을 외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민요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독소를 부식하는데 리용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 말로 말하지 못 하게 하였으며 민요도 부르지 못 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조선 사람의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문화는 말살되지 않았으며 오늘 위대한 로동당 시대에 와서 세상에 자기의 자랑찬 성과를 시위하면서 계속 개화 발전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민요들을 《쟈즈화》하고 있는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하던 그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 쟈즈의 이와 같은 반동성과 반인민성은 그의 반예술적 본질 뿐만 아니라 쟈즈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쟈즈는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제국주의 산물이며 사멸하여 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림종을 고하는 장송곡이기도 하다.

쟈즈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과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서구라파 부르죠아 음악이 전면적인 붕괴기에 들어선 제 1 차 세계 대전 시기에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더욱 더 부패하고 광란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첫 시기에 쟈즈는 미국 유흥장에서 비대해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관능적 향락을 충족시키며 그들의 소위 미학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였다. 그 때로부터 부르죠아 어용 음악가들은 흑인들이 연주는 음악에서 그 인민적 내용을 제거하고 그들의 독특한 음악 양식을 악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로부터 부르죠아 음악가들은 쟈즈의 전통이 마치도 흑인들의 음악을 발전시킨 것인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랑》을 외곡하여 만든 쟈즈곡이 《아리랑》을 발전시킨 것으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터무니 없는 허위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쟈즈는 미국에서 급속하게 보급되였을 뿐만 아니라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과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 본격적인 침략적 진출을 하게 된 사정과 또한 쟈즈의 본성 자체가 여러 나라 독점 지배층의 주목을 끌게 한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그리하여 쟈즈는 자본주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1929~1933년의 공황을 전후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사상적 무기로서 자기의 반동적 사명을 수행하게 되였다.

《폭스 트롯트》, 《부르스》, 《탕고》 등 가지각색의 당시의 쟈즈는 달콤하고 애상적인 성격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며 그들의 허무감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쟈즈는 더욱 추잡하고 광란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부기—부기》,《훌라후프》,《만보》,《챠챠차》, 《록큰롤》, 《록카빌리》, 《트위스트》 등 까다로운 명칭과 형형 색색의 쟈즈들이 련이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의 반동적 본질은 하나이며 날이 갈수록 그의 해독성과 악랄성이 심해 간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최근 시기에 《록큰롤》, 《트위스트》 등의 쟈즈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보급되여 많은 청년 남녀들의 생활에서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춤 추는 순서도 절차도 없는 《록큰롤》은 남자가 녀자를 붙잡고 머리 우로 올리고, 돌리고, 서로 자빠지면서 마치도 미치광이가 흥분되여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춤이다. 몇 년 전 서부 독일 어느 극장에서 《록큰롤》에 미친 젊은이들이 이 춤을 추다가 흥분된 나머지 극장 내에 있는 유리창이며, 의자를 돌아 가면서 부셔 놓고 마지막에는 싸움판까지 벌리여 수라장을 만든 결과 경관들이 출동해서야 겨우 해산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비일비재하며 깡패, 건달, 타락분자들의 수가 늘어 가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답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쟈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미국 쟈즈는 사람들의 정신적 타락과 승냥이 도덕을 강요하며 라태와 무기력, 굴종과 절망의 사상을 주입하면서 그들의 건전한 리성과 정서 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간다. 또한 쟈즈는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여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마비시키며 세계 도처에서 타오르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꺼보려는 침략적 흉기로 리용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쟈즈를 다른 형태의 부르죠아 사상과 마찬가지로 기회만 있으면 우리 생활에 침습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현 시기 사상 전선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생활에서 양풍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하게 결부하여 쟈즈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민족 문화 특히는 우리 음악을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철저히 근거하여 그의 민족적 특성과 인민성을 더욱 발양하도록 보다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해방 후 우리 음악은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근거하여 류례 없는 개화기에 들어 섰으며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술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밝은 태양 아래》를 비롯한 수 많은 우수한 작품들로 하여 《세계 최고봉의 예술》, 《황금의 예술》이라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1962년 헬싱키에서 있은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서 소개된 우리 나라 예술을 통하여 세계 사람들은 《어둠을 밝혀 주는 홰'불과 같은 예술》이라고 극구 찬양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예술 작품 평가에서 보통 써여지는 말이 아니다.

오늘 쟈즈가 범람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 인민들의 빈곤한 정서 생활에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술은 홰'불과도 같이 밝고 아름다운 인민적인 예술을 보여 주었으며 인류의 문화를 쟈즈의 진창 속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 바로 조선에서 꽃피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조선에 와 본 일이 없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예술을 통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조선을 동경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예술의 혁명성과 민족적 특성을 보다 강화하여 보다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공산주의 예술의 진면모를 더욱 더 시위하여야 할 것이다.

《청 년 생 활》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전화－38－58, 83－85

1963년 2월 15일, 인쇄 1963년 2월 20일 발행,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169, (값 35 전)

새로 나온 책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 상 기 (7)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7)이 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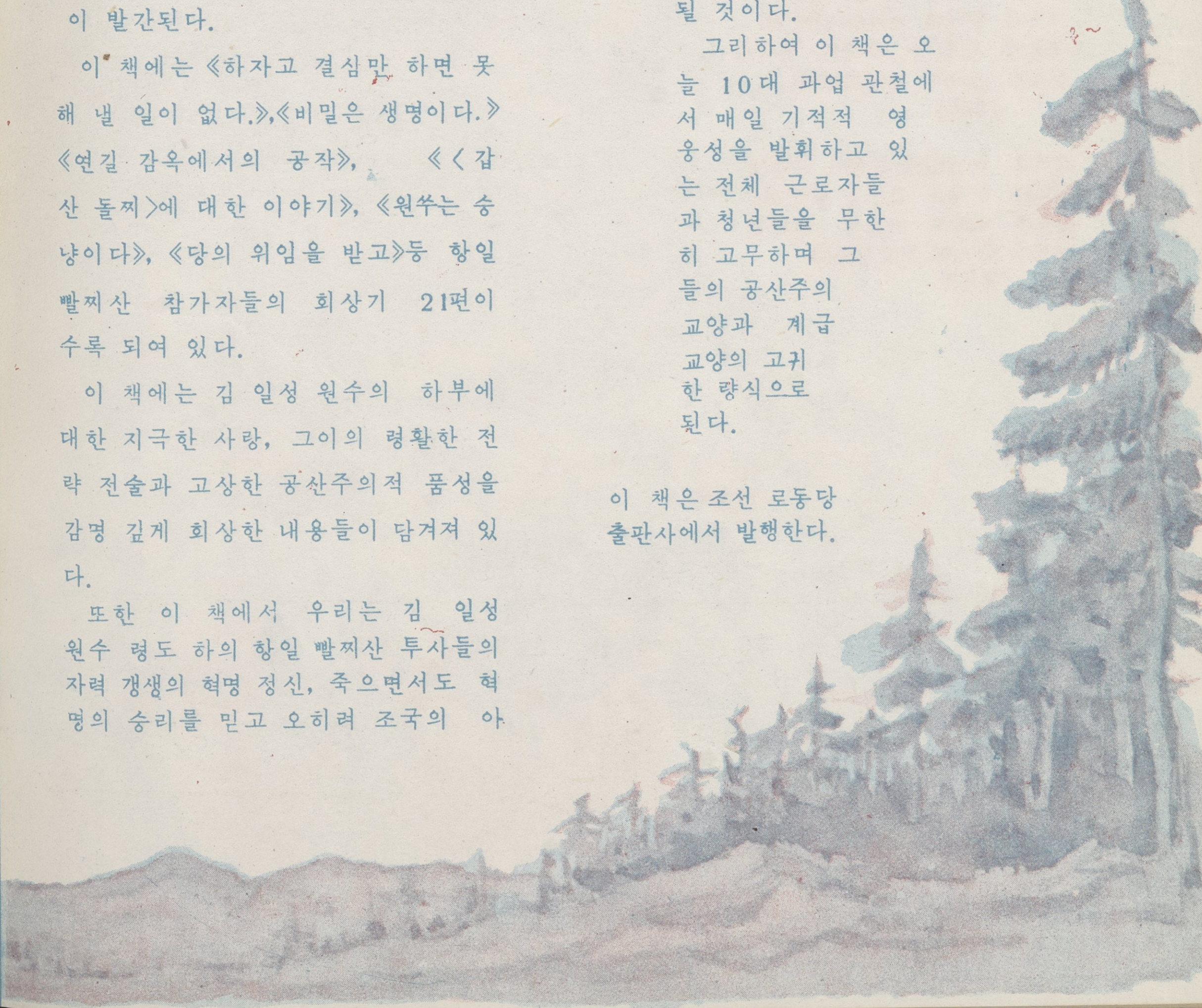
이 책에는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비밀은 생명이다.》《연길 감옥에서의 공작》, 《〈갑산 돌찌〉에 대한 이야기》, 《원쑤는 승냥이다》, 《당의 위임을 받고》등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21편이 수록 되여 있다.

이 책에는 김 일성 원수의 하부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이의 령활한 전략 전술과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감명 깊게 회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는 김 일성 원수 령도 하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죽으면서도 혁명의 승리를 믿고 오히려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고상한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 유격대와 인민간의 군민 일치의 혈연적 련계, 당과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자기 희생성과 혁명적 동지애,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사회주의 애국주의 등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오늘 10대 과업 관철에서 매일 기적적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고무하며 그들의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의 고귀한 량식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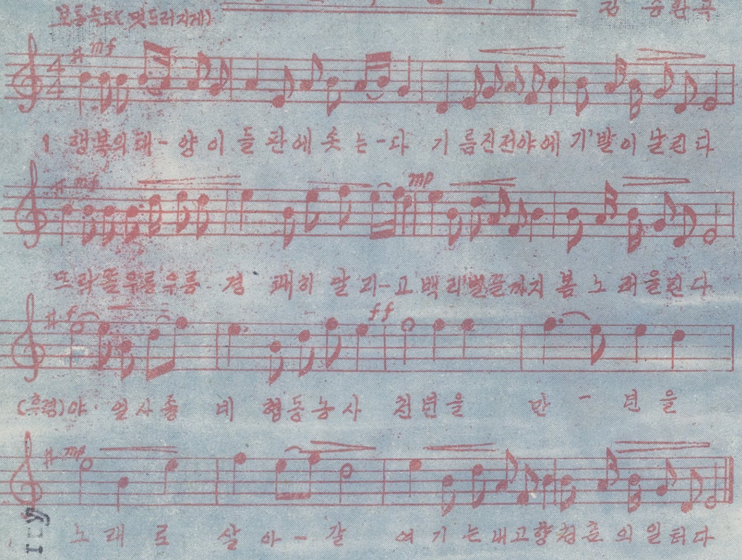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8311 Чхон'нён слнхвэль

청춘의 일터다

조 태천 시
김 승환 곡



2, 봄철은 언덕에 사과꽃 피고
가을은 들판에 나락이 춤춘다.
풍요한 협동'벌 해마다 풍년에
살림이 늘어서 락원이란다.
(후렴)

3, 기계로 논밭갈이 일하기 즐겁고
살초제 농약은 김매기 좋구나.
희망도 리상도 여기서 꽃피고
살기가 좋아서 락원이란다.
(후렴)

